

《재크화 통계의 날 기념 심포지엄》



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 현황

— 1995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를 중심으로 —

1997. 9

통 계 청



B 0023034

06342i

I. 들어가는 말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구 및 주택의 규모와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 학술연구, 통계모집단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통계조사로 지난 1995년 11월에는 15번째에 해당하는 1995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었다.

1995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중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상주하는 사람과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수조사로 나이, 성별, 가구주와의 관계, 종교 등 인구에 관한 7개 항목과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주거시설 형태 등 주택에 관한 10개 항목 등 전가구에 대해 17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17개 항목이외에도 출생지,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여부, 경제활동상태 등 인구에 관한 9개 항목과 임차료 등 주택에 관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8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199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수차례에 걸친 방대한 자료처리과정(data editing)과 집계내용 심사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2월말 전수항목에 대한 최종집계 결과가 공표되었고, 5월에는 17권에 상당하는 전수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 10% 표본조사항목에 대한 집계도 완료되어 이번 10월말경에는 6개 부문에 걸친 표본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본 발표자료는 표본조사항목중 거주지 이동 및 통근·통학과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집계분석한 것으로 본 발표내용이 최근 심각한 도시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련 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I. 들어가는 말	3
II.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현황(1990~1995)	5
1.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	8
(1) 출생지 거주인구비율	8
(2) 출생시도별 인구분포	8
2.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현황	11
(1) 지역간 거주지 이동흐름	11
(2) 수도권지역의 거주지 이동흐름	15
(3) 수도권지역 인구의 거주지 이동방향	16
(4) 서울시 구별 거주지 이동흐름	17
3.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18
(1)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18
(2) 서울 전출자의 특성	24
4.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유형	25
(1) 이동유형별 인구분포	25
(2) 이동유형별 인구의 특성 분포	27
III. 우리나라 인구의 통근·통학 현황(1995)	29
1.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 현황	32
(1) 통근·통학 인구규모 및 통근·통학율	32
(2) 성·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및 통근·통학율	33
2. 주간인구	34

(1) 시도별 주간인구	34
(2) 대도시의 구(군)별 주간인구	35
3. 통근·통학 흐름	39
(1)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통근·통학 흐름	39
(2) 광역시의 통근·통학 흐름	41
4.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	42
(1) 대도시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	42
(2) 통근·통학자와 거주지간 불일치도	43
5. 통근·통학자의 교통이용실태	44
(1) 이용교통수단	44
(2) 소요시간	48
6. 성별 통근·통학 실태	50
(1) 성별 통근·통학인구	50
(2) 성별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 및 소요시간	51
(3) 성별 이용교통수단	52
IV. 통계표	55
1. 거주지 이동	55
2. 통근·통학	71
3. 부록: 행정구역별 통근·통학 인구(1995)	91

II.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현황(1990~1995)

- 1.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
- 2.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현황**
- 3.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 4.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유형**

II.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 현황

자 료

거주지 이동과 관련한 항목은 1949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는 개인의 이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생지」는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주로 살고 있던 곳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①현재 살고 있는 집, ②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다른 시군구 또는 시도, ④북한 또는 외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생한 집이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는 현재의 변경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5년전 거주지」는 만 5세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5년전(1990년 11월 1일 기준)에 살았던 곳을 조사한 것으로 출생지와 마찬가지로 5년전 거주지명(행정구역)은 시·군·구단위에서만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시군구를 이동의 공간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以前の 郡部 지역이 道내(統合)市에 편입된 경우가 많아 시군구간 이동으로는 정확한 도시-농촌간 이동량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거주지 이동에 관한 본 발표자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현거주지(1995년 11월 1일 현재)와 출생지, 현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1990년 11월 1일 현재)를 비교하여 출생지별 분포와 최근 5년간의 이동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부분은 출생지-5년전 거주지-현거주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유형을 분석하여 보았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이동현황 및 이동유형 분석에서는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북한인 이동자는 제외하고 국내이동자만 분석하였다.

단, 어떤 두 시점간의 거주지를 비교하여 이동여부를 파악할 때 두 시점간 기간사이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기간중 이동한 적이 있으나 처음 거주지로 다시 돌아간 경우는 이동으로 파악되지 않게 되고, 또한 기간중 2번 이상 이동한 경우는 1번만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동량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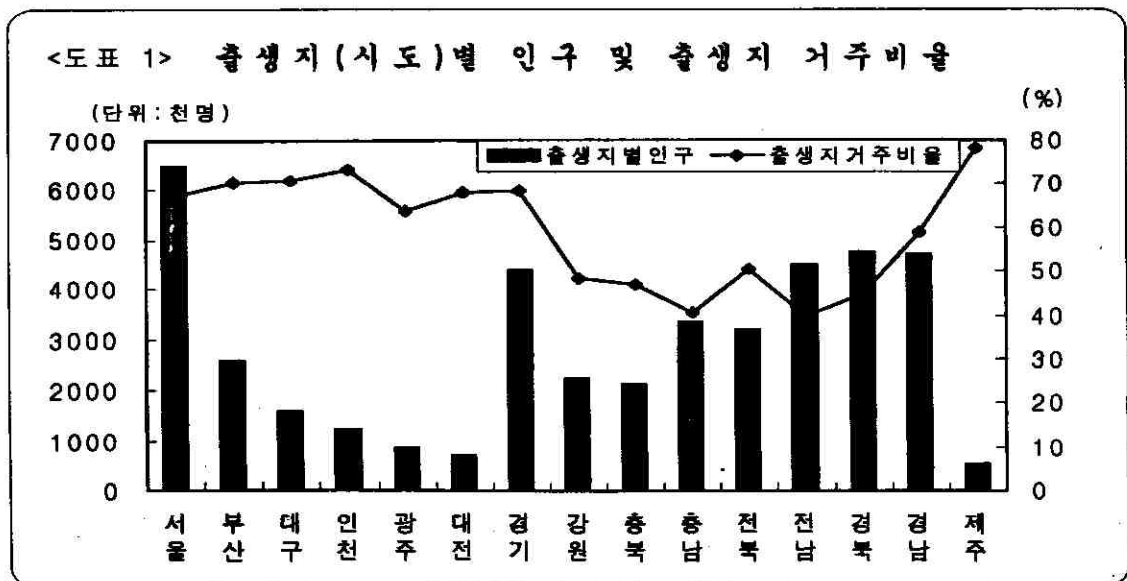
분석결과

1.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

(1) 출생지(市道) 거주인구비율(居住人口比率)

19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중 55.7%가 태어난 시도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인 44.3%는 태어난 시도를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표1 참조). 以前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출생한 시도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점차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출생지 거주인구비율의 지역별 차이를 보더라도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군부지역 출신들이 출생지를 떠나 사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 출신이 60%로 가장 높고, 충남, 경북, 충북, 강원 출신들도 반수 이상이 타향에 살고 있는 반면에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에서 태어난 인구중 타향에 사는 인구비율은 30%내외에 불과하다(표1). 예외적으로 제주도 출신의 경우는 시도중 가장 높은 비율인 78.4%가 출생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이유보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한 시도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성이나 연령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면, 우선 성별로는 현재 출생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남자는 56.9%, 여자는 54.5%로, 남자보다는 여자인구중 태어난 시도를 떠나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표2). 남녀간의 차이는 20세 이후 연령층에서 두드러져 여자의 출생지 거주비율이 남자보다 낮으며, 20세 미만에서는 출생시도 거주비율이 남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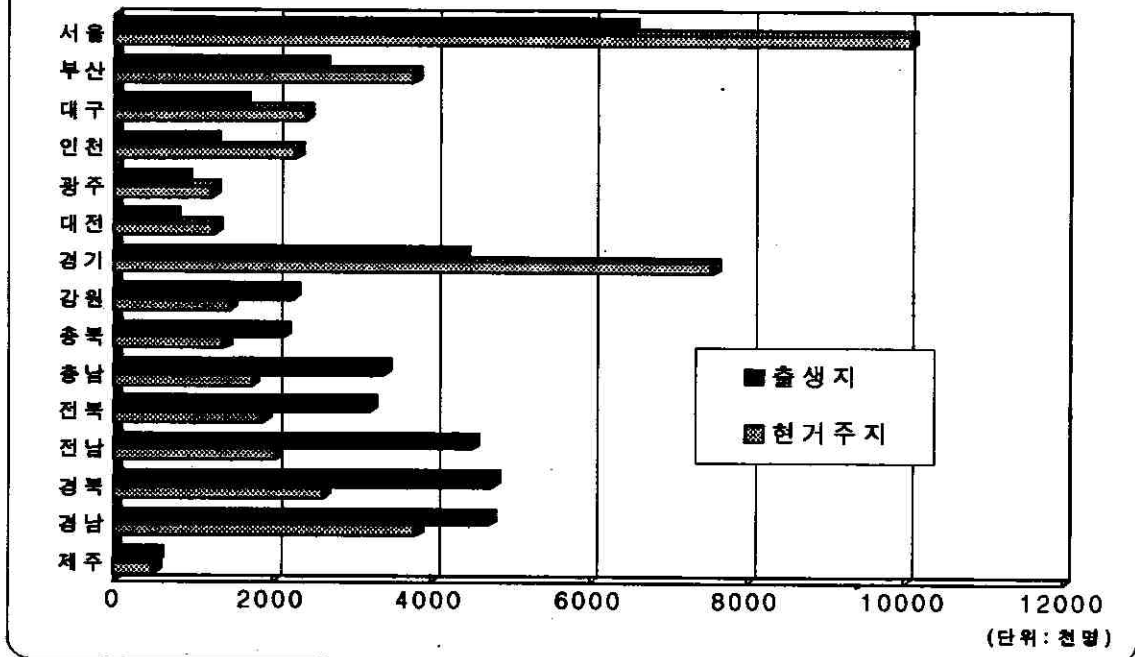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지 거주인구비율은 낮아지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살아온 기간이 길어 이동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며, 20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은 주로 학업, 취업, 결혼 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출생지 거주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0~44세로 10명중 6명이 타향에 살고 있으며 이 연령은 가족생활주기면에서 볼 때 자녀교육,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동이 잦은 연령층이다. 한편 50대에 접어들면서는 출생지 거주비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 부부가 함께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이동성향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출생시도별 인구분포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출생시도별로 보면, 서울에서 태어난 인구비율이 14.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 경남, 전남, 경기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표3). 출생지별 인구분포를 현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인구분포와 비교해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현거주지별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 대도시일수록 타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별로 어느 시도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서울인구의 43.5%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나머지 반 수 이상은 다른 지역출신으로 전남(9.5%), 경기(8.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표4). 한편 부산인구의 73.8%는 부산·경남지역출신, 대구인구중에는 대구·경북지역출신이 82.6%, 광주인구중에는 광주·전남출신이 89.0%, 대전인구중에는 대전·충남지역출신이 62.0%로, 광주지역이 호남권이외의 타지역출신 거주비율이 가장 낮고 서울은 타지역출신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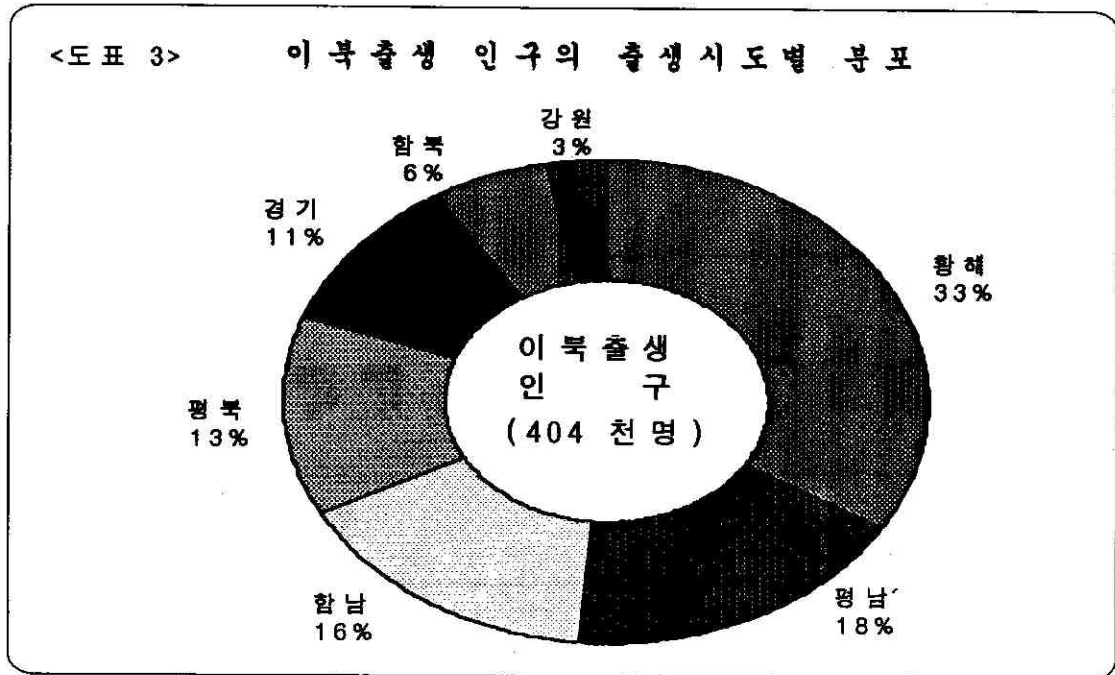
<도표 2> 출생지 및 현거주지별 인구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별 분포를 보면 출생지가 남한이 아닌 사람들이 585천명(1.3%) 있는데 이들중 404천명은 이북에서 출생한 인구로 전체 인구의 0.9%에 해당한다(표5). 이북출생자중 남자는 222천명, 여자는 182천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고, 이를 성비로 나타내보면 121.7로 총인구의 성비(100.7)보다 훨씬 높다. 이북출생인구의 성비는 모든 연령층에서 총인구 성비보다 높으며, 특히 60, 7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데 이는 6.25 당시 월남인구중에는 20, 30대의 젊은 남자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북출생인구를 출생시도별로 보면 남한에서 가까운 황해도 출신이 3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평남, 함남, 평북 순으로 나타난다(표6). 또한 이북출생인구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현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39.5%, 경기 23.3%, 인천 11.9%로 수도권지역에만 74.7%가 살고 있다. 이를 지역별 총인구에 대한 비율로 보면 인천이 인구 100명당 2.1명이 이북출생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6명, 강원 1.3명, 경기 1.2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한에 지역연고가 별로 없는 이북출생의 경우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터를 잡게 되고,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경제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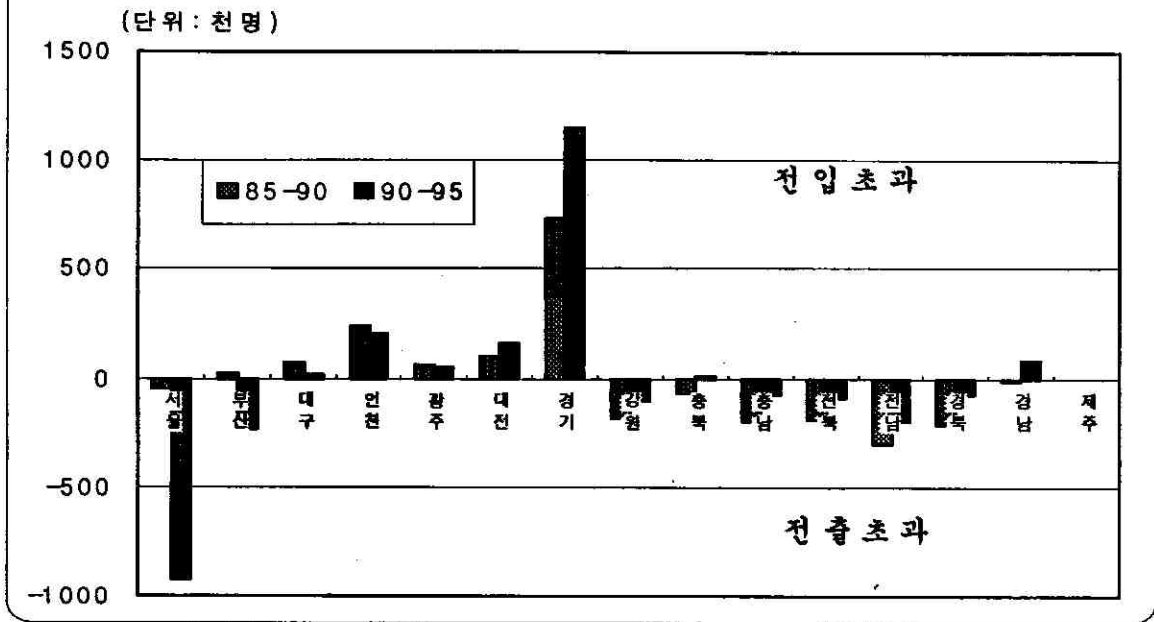
2.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현황

(1) 지역간 거주지 이동흐름

최근 5년간(1990~1995) 우리나라안에서 최소한 市郡區 경계를 넘어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모두 10,087천명으로 5세 이상 인구 4명중 1명이 5년전과는 다른 지역(시군구 혹은 시도)에 살고 있다(표7). 이들 이동자중 시도안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4,397천명, 시도를 벗어나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5,690천명으로 시도간 장거리 이동이 총이동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도내 이동자수는 1985~199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도별로는 두 기간을 비교해 볼 때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내 이동자수는 1985~199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고, 경기를 제외한 8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내 이동자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표8). 한편 부산 등 5개 대도시와 경기지역의 시도내 이동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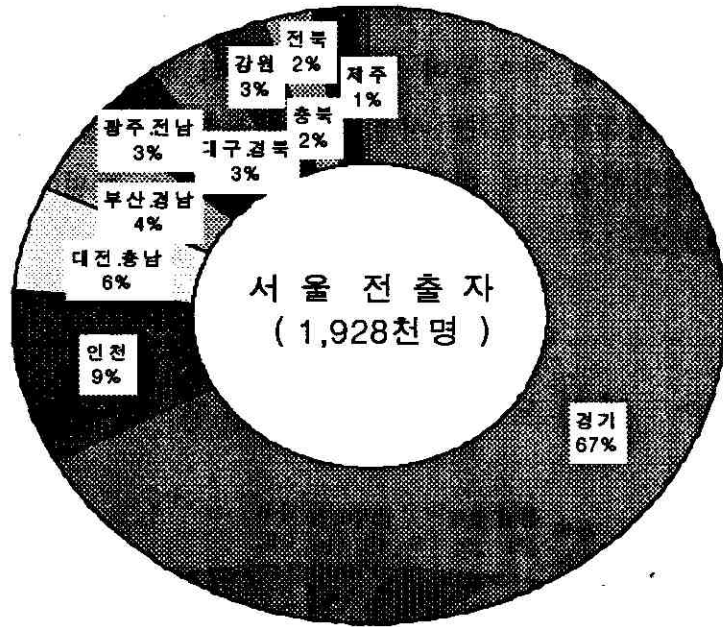
<도표 4> 시도간 순이동 추이



시도간 이동을 보면 최근 5년사이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늘어난(순이동량이 +) 지역은 인천, 대전 등 일부 대도시와 경기, 경남 등이고, 반면에 서울, 부산, 전남, 강원, 전북, 경북, 충남은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인구이동요인에 의해 인구가 감소한(순이동량이 -) 지역들이다.

먼저, 서울은 최근 5년사이 1,003천명이 타 시도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동안 1,928천명이 서울을 떠나는 바람에 925천명의 전출초과현상을 보인다(표 8). 최근 5년간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중 67.1%는 경기로, 9.2%는 인천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으로 서울 전출인구의 8할 가까이가 인근 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하였다(표10-1). 이는 서울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근교지역과 위성 신도시 개발에 따라 서울로부터 상당수의 이동자가 경기도로 흡수된 결과이다.

<도표 5> 서울 전출자의 현 거주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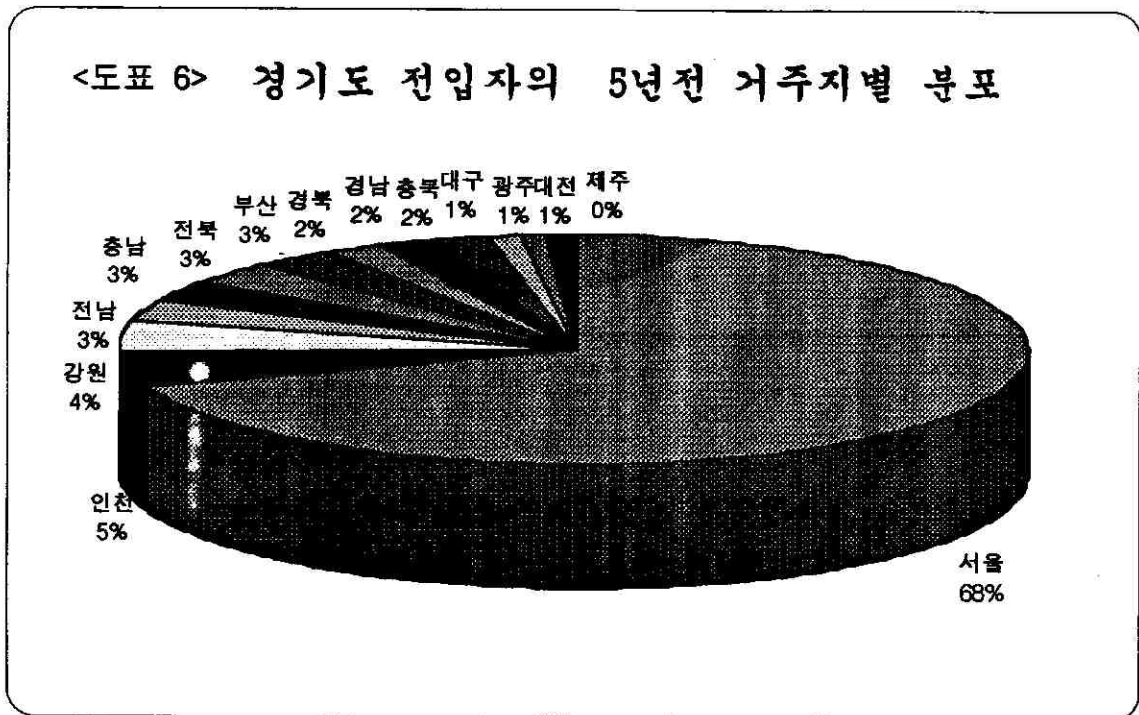


부산은 처음으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여 순이동량이 △231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8). 최근 5년간 부산을 떠난 전출자의 절반 가까이(47.6%)는 경남으로 이동했으며, 다음으로 많이 간 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 등이다(표10-1).

대전은 전입인구의 초과로 인해 순이동이 159천명으로 나타났으며(표8), 전입한 인구는 주로 충남, 서울, 경기 등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표9-1). 그러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중 인근 道(충남)로부터 전입한 사람은 26.9%에 불과한데 이는 최근 5년동안 공공시설이 대전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서울 등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가 늘어난 것에 일부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충남지역거점 도시로서의 대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은 1985~1990년에 비해 다소 순이동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기 다음으로 시도간 이동에 의한 전입초과량이 많은 지역으로 주로 서울(40.6%)과 경기 지역(29.5%)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표8, 표9-1).

경기지역은 15개 시도중 인구유입이 가장 많아 최근 5년사이 1,901천명이 타 시도에서 경기지역으로 전입하였으며, 순이동량은 1,148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8). 이는 1985~1990년보다도 418천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경기지역이 타 시도로부터 상당수의 인구를 받아들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경기 전입자의 7할 정도(68.1%)는 서울에서 이동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로부터 고르게 전입하였으며 이들중에는 인천(5.2%), 강원(4.0%)이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인다(표9-2).



경남은 처음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하여 순이동량이 87천명으로 나타났다으며, 경남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중 반수 이상(54.7%)이 부산에서 이동한 사람들이다(표8, 표9-2). 9개도 전입자를 비교해 보면 지역거점 대도시로부터 전입하는 인구의 비율이 경남지역의 경우 두드러지게 높는데, 이는 다른 권역(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의 인구이동 흐름과는 달리 부산·경남지역의 경우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부산의 인구가 주변 근교나 경남의 중소도시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수도권지역의 거주지 이동흐름

이제까지 살펴본대로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거주지 이동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동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패턴이 주된 흐름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농촌인구의 대거 전입으로 대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왔으나, 최근들어 나타나는 이동패턴을 보면 대도시권 형성에 따라 대도시로부터 주변 근교나 중소도시로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는 지방으로부터 받아들인 이동인구를 다시 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의 이동흐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1990~1995)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시도간 총이동량을 보면 전입인구는 총 3,342천명, 전출인구는 총 2,918천명으로 나타난다(표 11). 수도권지역 전입인구중 63.6%는 수도권내에서 이동한 사람들이며, 나머지 36.4%는 수도권외 시도에서 수도권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또한 전출인구의 경우도 72.8%는 수도권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1990~1995년 수도권지역의 인구이동은 상당 부분이 수도권내 이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동안(1990~1995) 수도권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1,217천명,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793천명으로 수도권지역의 순이동은 424천명으로 나타난다. 1985~1990년에 비해 수도권 전입자는 Δ 19.1% 감소(1,505천명→1,217천명), 수도권 전출자는 27.7% 증가(621천명→793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이동량은 1985~1990년(884천명)보다 460천명이나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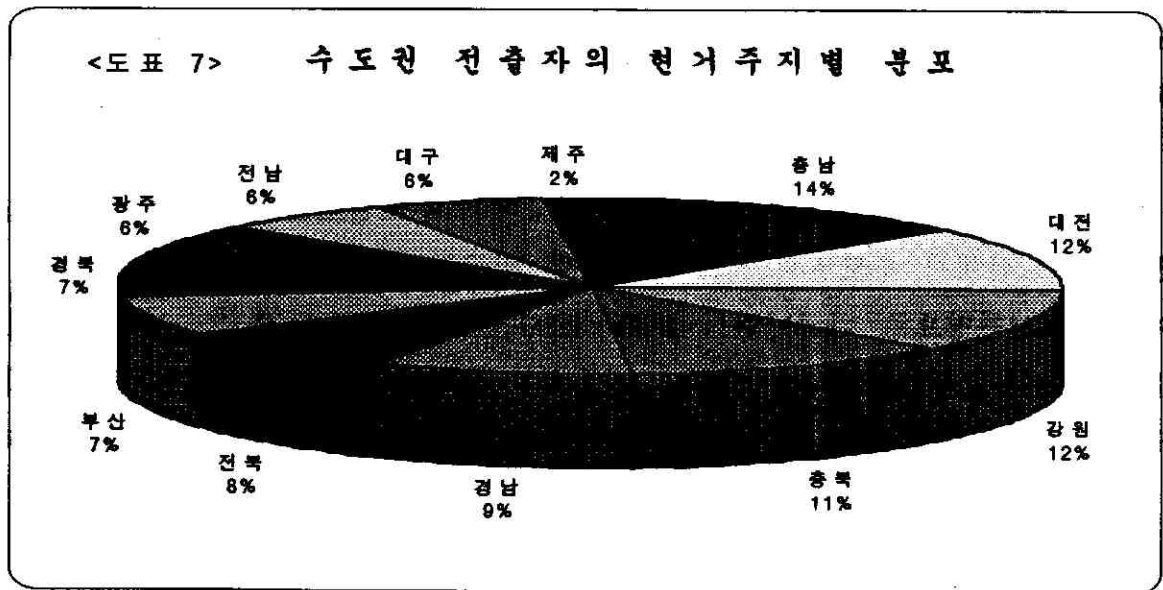
수도권지역의 이동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전입인구(1,003천명)중 수도권내(인천, 경기로부터)에서 이동한 사람들은 42.3%, 수도권외 시도로부터 전입한 사람들은 57.7%로 나타나는 한편, 인천과 경기로 전입한 인구(각각 438천명, 1,901천명)중 70% 이상이 수도권내 이동자이다. 이처럼 서울은 여전히 전입인구중 수도권외 다른 시도로부터의 이동자 비율이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이동자보다 높게 나타나며, 아직도 서울은 수도권외 지역에서 이동자를 받아들여 수도권 근교지역으로 유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서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1985~1990년에 비해 49.6%(984천명 →1,472천명)나 증가하였다.

(3) 수도권지역 인구의 거주지 이동방향

최근 5년간(1990~1995) 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외 시도로 진출한 사람들은 총 793천명으로 1985~1990년(621천명)에 비해 172천명(27.7%)이나 증가, 수도권을 떠나는 진출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표12).

수도권을 떠난 진출자들의 현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충남, 대전, 충북 등 대전·충청지역이 36.7%로 가장 많고, 강원도로 이동한 사람도 11.9%를 차지하고 있다. 1985~1990년에 이어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수도권을 떠나 부산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은 총 1,928천명으로 1985~1990년에 비해 551천명(40%)이나 증가하였다(표13). 서울 진출인구중 76.3%에 해당하는 1,472천명은 근접한 수도권내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23.7%는 수도권외 시도로 이동하였다.

특히 서울지역 전출자중 6할이 넘는 1,196천명은 경기도 시부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1985~1990년 이동량(659천명, 47.9%)에 비하면 1.8배나 된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 시부로 이동한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는 市별 분포를 보면 성남시가 20.9%로 가장 많고, 고양시(17.4%), 부천시(11.1%), 안양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분당(성남시)을 비롯한 경기도 신도시 개발이 서울인구의 분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표14).

같은 기간중 인천을 떠난 인구는 236천명으로 1985~1990년(174천명)에 비해 35.6% 증가하였다(표13). 인천 전출자중 41.9%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 30.6%는 수도권외 다른 시도로, 27.5%는 서울로 이동하였으며, 1985~1990년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수도권외 시도로 이동하는 사람이 36천명에서 72천명으로 배가 늘어났다. 인천에서 경기도 시부로 이동한 사람들도 56천명에서 85천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들중 34.4%는 부천시, 12.2%는 안산시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된다(표14).

인구유입량이 가장 많았던 경기는 지난 5년간 754천명이 경기도를 빠져나갔으며 전출량은 1985~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표13). 경기지역 전출인구중 47.7%는 서울로, 35.1%는 수도권외 시도로, 17.1%는 인천으로 이동하였으며, 1985~1990년에 비해 서울로 이동한 사람은 감소한 반면 수도권외 시도로 이동한 사람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도권지역 인구의 이동흐름을 보면 수도권내 지역간의 인구이동이 주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동패턴도 특징적이다.

(4) 서울시 구별 거주지 이동흐름

최근 5년간(1990~1995) 서울시내 구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안에서 다른 구로 이동한 사람이 총 1,438천명으로, 이를 강북과 강남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강북내에서 혹은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한 사람이 720천명, 강남내에서 혹은 강

북에서 강남으로 전입한 사람이 718천명으로 강북과 강남지역의 전입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표15). 한편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전입자중 강남지역에 정착한 비율(54.7%)이 강북지역(4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서울시내에서 이동한 사람들의 전입區별 분포를 보면 강북의 노원구(11.1%)가 가장 많은 전입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강남의 강서구(8.8%), 강남구(6.8%), 송파구(5.9%)도 전입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한편 다른 시도로부터의 전입자들은 대체적으로 구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강남의 송파구(6.8%)와 관악구(6.3%)가 다른 시도로부터 비교적 많은 이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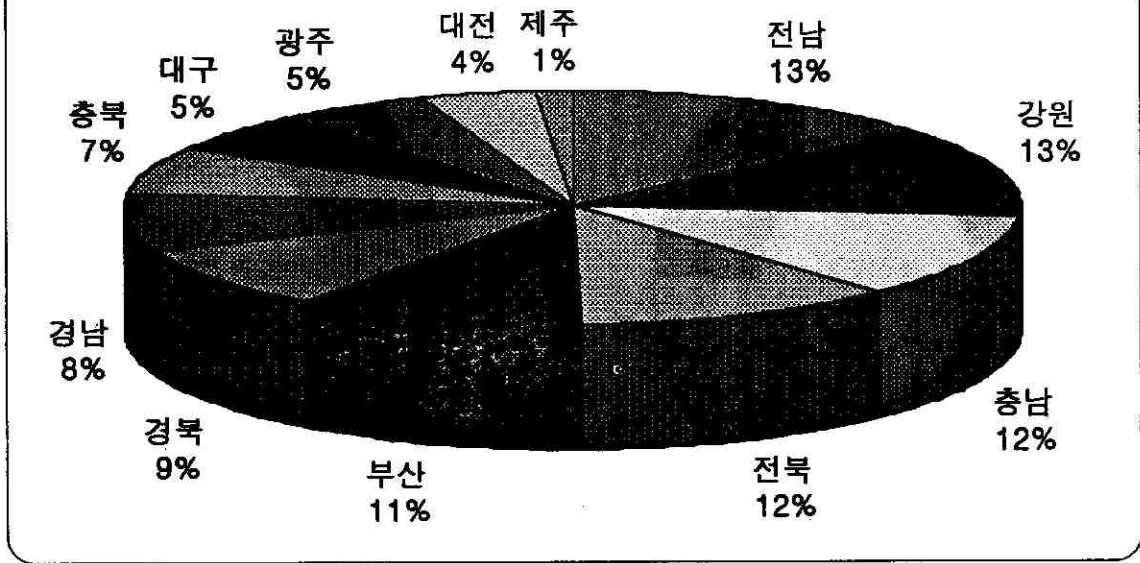
3.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

(1) 수도권 전입자의 특성

최근 5년동안(1990~1995)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람들은 총 1,217천명으로 이들의 5년전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전남(13.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12.8%), 충남(11.8%), 전북(11.5%), 부산(10.5%) 순으로 나타난다(표16). 1985~1990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 전입자는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수도권의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여자가 51.7%, 남자가 48.3%로 대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표17). 특히 수도권의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이동자중 여자의 비율이 인천이나 경기 전입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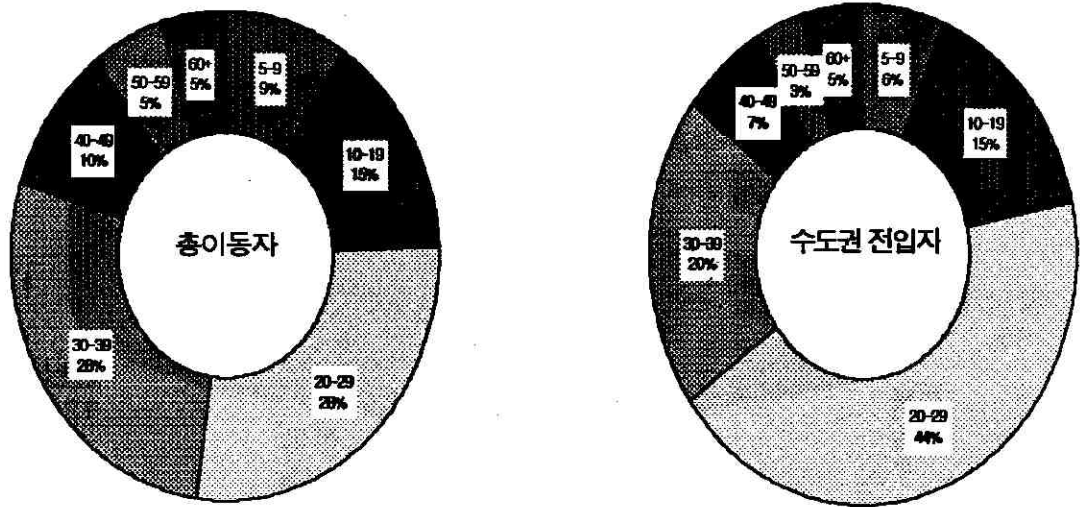
<도표8> 수도권 전입자의 5년전 거주지별 분포



다음으로 수도권 전입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9세가 43.7%로 가장 많으며, 30~39세도 20.3%를 차지, 수도권 전입자의 2/3 정도가 20, 30대 젊은 연령층 인구임을 알 수 있다(표17). 이를 우리나라 전체 이동자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중 20대 비율은 전체 이동자중 20대 비율(27.7%)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30대의 경우는 전체 이동자(27.6%)가 수도권 전입자(20.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20대층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전입해 오는 것은 가족단위의 이동보다는 취학이나 취업관계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20대 연령층 이외에도 수도권 전입자중에는 전체 이동자에 비해 15~19세 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학생층이 많기 때문으로 본다.

수도권내 지역별로 전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인천이나 경기지역에 비해 20~29세 연령층의 전입이 두드러지는데 반해 30대 전입자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수도권외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 아직도 취업이나 학업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동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서울 외곽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높은 주택가격 등 서울에 정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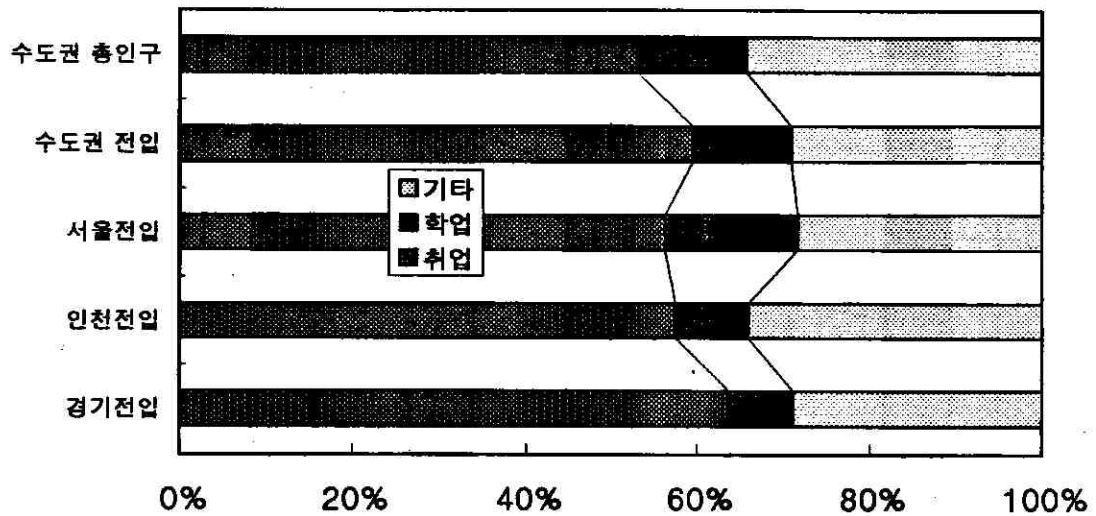
<도표 9> 총이동자 및 수도권 전입자의 연령별 분포



수도권 전입자들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으로 전입한 후 취업한 사람이 59.5%로 수도권 전체인구의 취업자 비율(53.0%)에 비해 훨씬 높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수도권지역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이동이 많으며, 아직도 서울이나 근교 지역이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18).

수도권내 지역별로 전입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 보면, 서울과 인천 전입자의 경우 경기지역 전입자에 비해 취업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에 전입한 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을 보면 서울 전입자중에는 15.3%, 인천과 경기 전입자는 7~8%대로 서울 전입자중에는 취업이외에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동한 젊은 학생층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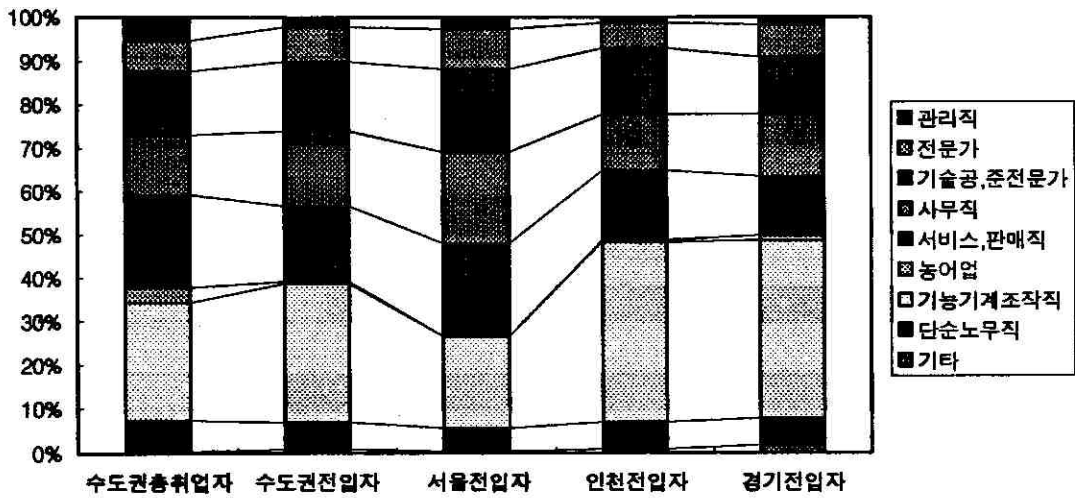
<도표 10> 수도권 총인구 및 수도권 전입자의 활동상태별 분포



수도권으로 전입한 후 취업한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수도권 전입 취업자의 31.8%는 기능기계조작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직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각기 17.3%씩을 차지하고 있다(표 19). 이를 수도권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중에는 관리직 종사자와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농어업숙련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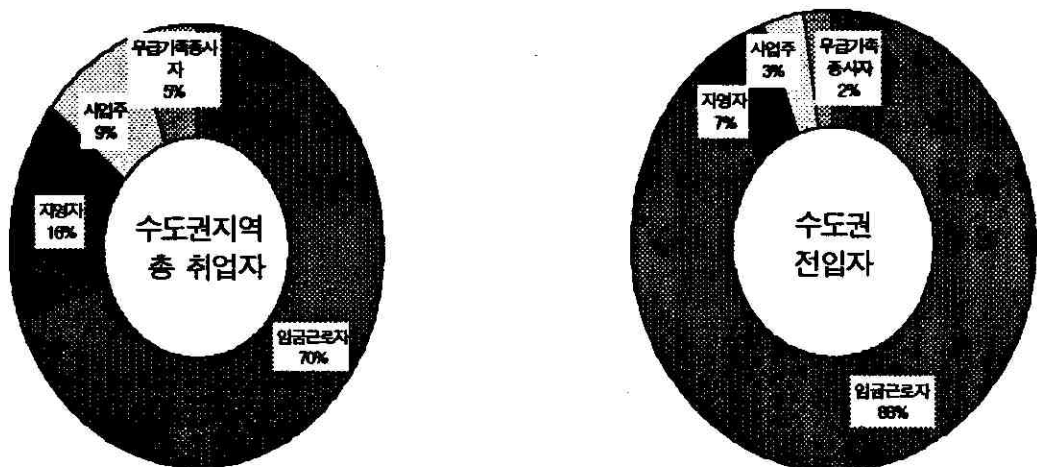
수도권 전입자들의 직업은 수도권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 전입자의 경우 사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전문직이나 관리직중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편 인천, 경기지역 전입자의 경우는 기능기계조작직 종사자의 비율이 서울 전입자의 2배 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내 지역간의 산업구조 차이 때문에 전입자들의 직업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인천과 경기 외곽지역의 산업이 수도권 전입자들의 주된 직업원천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표11> 수도권 총취업자 및 수도권 전입자의 직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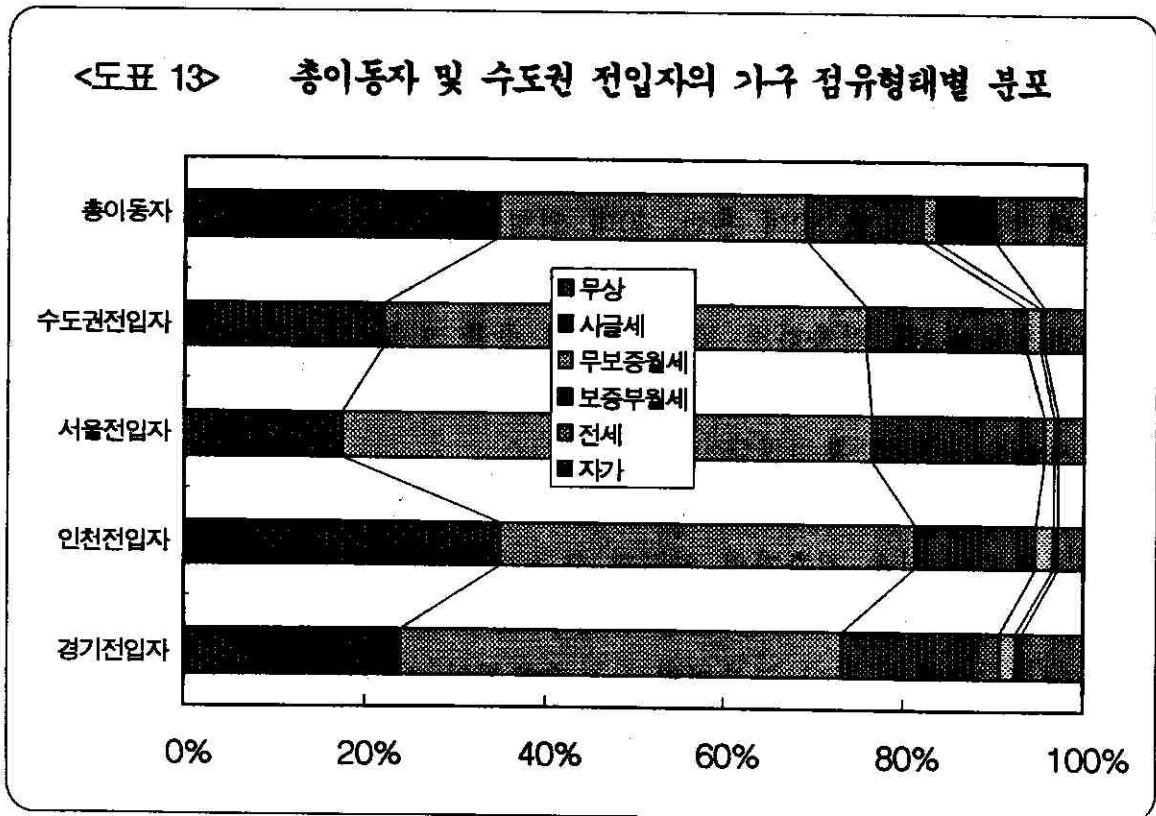
수도권 전입자중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88%를 차지, 수도권으로 이동한 초기단계에서는 자기사업보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표20). 수도권 전체 취업자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0%, 자영자 15.9%, 사업주가 8.8%로 수도권 전입자에 비해 자기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수도권내 지역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서울이나 인천 전입자중 자영자 및 사업주의 비율이 경기 전입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표12> 수도권지역 총취업자 및 수도권 전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수도권 전입자들이 살고 있는 거처의 점유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입자의 반수 이상인 53.7%가 전세로 살고 있으며, 월세로 사는 전입자는 19.3%로 수도권 전입자의 3/4 가량이 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21).

이와 같은 수도권 전입자들의 거주현황을 전체 이동자와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자가거주 비율(22.1%)이 전체 이동자(38.8%)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 전입자들의 거주상황은 수도권내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울 전입자의 경우 자가거주 비율이 17.4%로 가장 낮으며, 반면에 인천 전입자는 35.1%, 경기지역 전입자는 24.1%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이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도권지역이 갖고 있는 다른 흡입요인에 의해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2) 서울 전출자의 특성

최근 5년간(1990~1995) 서울을 떠나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은 총 1,928천명으로 1985~1990년에 비해 551천명(40%) 증가하였다(표22). 서울 전출자중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은 1,472천명, 수도권의 시도로 이동한 사람은 456천명으로 서울 전출자의 경우는 수도권내 이동(76.3%)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서울을 떠났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서울 전출자들의 특성별 분포를 보았다. 우선 성별로는 서울 전출자중 여자가 50.1%, 남자 49.9%로 대체적으로 남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표22). 다만 전출지별로 보면 다소 성별 차이를 보여,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중에는 여자가 51.3%, 남자가 48.8%로 여자가 남자보다 인천지역으로 많이 이동했으며, 경기도의 군부지역이나 수도권의 시도로 이동한 사람중에는 남자가 더 많다(표23).

연령별로는 서울 전출자중 30~34세가 17.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5~29세, 35~39세 순으로 많아, 서울 전출자의 반수 가까이(46.4%)가 25~39세에 속하는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2). 1985~1990년 서울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30대 후반, 40대 연령층의 서울 탈출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서울을 떠나는 사람중에는 과거처럼 서울에서 살다가 노후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30대를 전후한 젊은 층이 선별적으로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전출지별로는 서울 전출자의 연령별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나,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시부로 이동한 사람의 경우 40대, 50대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며, 반면에 경기 군부지역이나 수도권의 시도로 전출한 사람중에는 20~24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표23).

서울 전출자들의 혼인상태 및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초반 유배우자가 19.2%로 가장 많고, 45세 이상의 중노년층 유배우자들도 16%나 된다(표24). 전출지별로는 서울을 떠나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중 45세 이상 유

배우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서울에서 경기 시부로 이동한 사람들중 45세 이상 유배우자 비율이 18.9%로 가장 높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 살다가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후 내 집 마련 등을 위하여 경기 시부로 이동한 사람들로 생각된다. 한편 수도권외로 나간 사람들의 경우는 20대 초반 미혼자 비율이 높아 수도권내로 이동한 사람들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의 지방분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유형

개개인의 출생지, 5년전 거주지, 현거주지를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출생시부터 현 시점까지의 이동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세 시점의 거주지를 비교하여 개인의 이동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으로, 여기서의 이동은 앞에서의 이동흐름 분석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시군구간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동유형별로 보면, 첫 번째 유형은 출생지, 5년전 거주지, 현거주지의 시군구가 모두 동일한 경우로 “비이동”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이동자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는 동일하나 최근 5년간 이동하여 5년전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로 “1회 이동(최근)”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는 다르나 5년전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한 경우로 이는 1회 이동에 속하나 이동한 지 5년이 넘었고 최근 이동하지 않아 어느 정도 정착한 경우로 볼 수 있어 “1회 이동(정착)”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네 번째는 출생지, 5년전 거주지, 현거주지의 시군구가 모두 다른 경우로 “반복이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유형은 출생지와 5년전 거주지의 시군구는 다르나 현거주지의 시군구가 출생지와 동일한 경우로 “귀환이동”으로 분류하였다.

(1) 이동유형별 인구분포(5세 이상)

1995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5세 이상 인구중 출생지(시군구)를 한 번도 벗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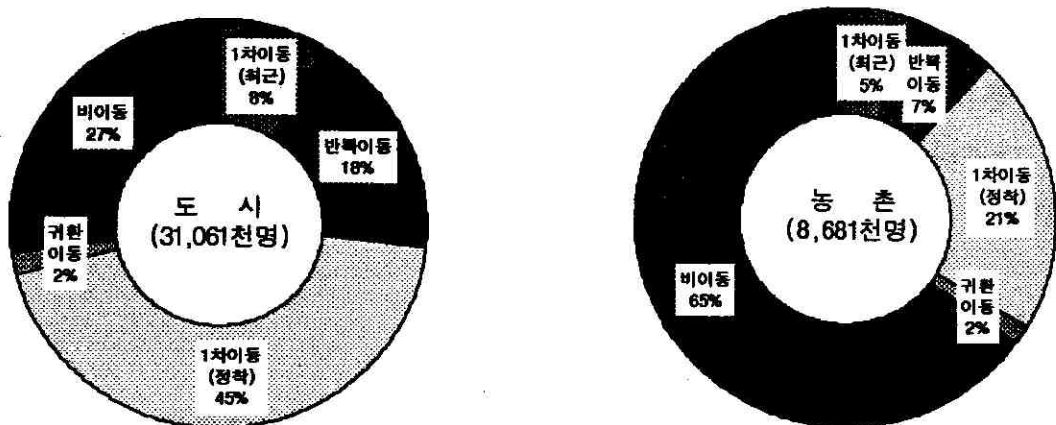
나지 않고 살고 있는 비이동인구는 14,067천명(35.4%)이며, 출생후 한 번이라도 거주지(시군구)를 옮긴 이동인구는 25,670천명(64.6%)으로 집계되었다(표25).

이동인구의 유형별로는 한 번 이동했으나 최근 5년간은 이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착하여 살고 있는 “1회 이동자(정착)”가 39.5%, 최근 5년간(1990~1995) 한 번 이동한 “1회 이동자(최근)”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계속 옮기며 살고 있는 “반복이동자”도 15.8%나 된다. 한편 출생지를 떠난 적이 있으나 최근에 다시 출생지로 돌아와 살고 있는 “귀환이동자”는 1.7%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이동유형 분포를 보면 도시(洞部)·농촌(邑面部)간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72.8%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동한 경험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35.1%만이 이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시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4.5%는 출생지(시군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에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사는 인구 5명중 1명 정도(18.3%)는 최소한 2번 이상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반복이동”)이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 거주자중 출생지(시군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에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1.5%이며, 2회 이상 “반복이동”비율(7.1%)과 “1회 이동(최근)”비율(4.9%)도 도시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표14> 도시·농촌지역의 이동유형별 분포



(2) 이동유형별 인구의 특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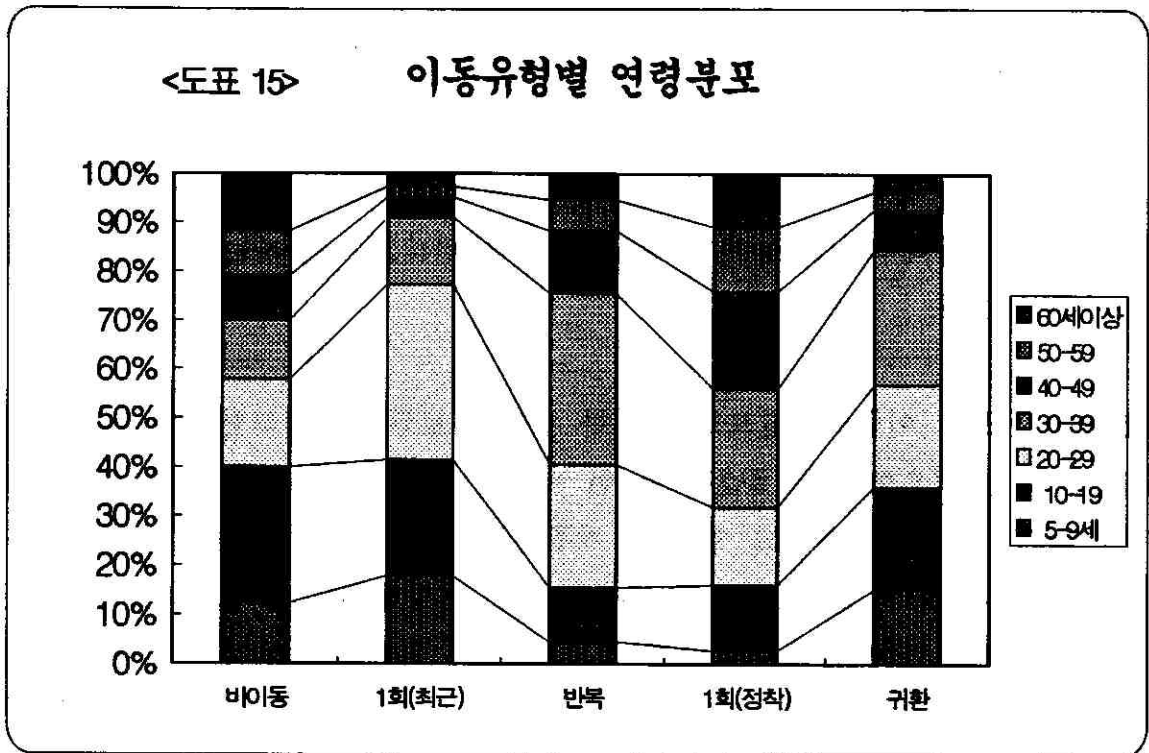
이동 및 비이동자의 특성을 이동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우선 성별 분포를 보면 비이동자중 남자는 51.6%, 여자는 48.4%로 남자가 약간 많은 반면, 이동자의 경우는 여자가 52.4%로 남자보다 많다(표26). 특히 이동유형중 1회 이동(정착)의 경우 여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이동후 정착성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귀환이동자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비이동자의 경우는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이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이동자는 20~4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다.

연령별 분포는 이동유형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생애주기단계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한 번 이동한 “1회 이동자(최근)”중에는 10대, 20대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를 계속 옮기며 사는 “반복이동자” 경우는 30대(34.9%)와 20대(24.9%)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들 연령층은 가족생활에 있어 아직 안정되지 못한 결혼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취직, 주택문제 등 이동요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동횟수도 많음을 보여 준다. 이동경험은 있으나 최근 5년간은 이동하지 않은 “1회 이동자(정착)”의 경우는 30, 40대가 44.4%, 50대 이상도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연령층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 “귀환이동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나이가 많은 연령층보다는 오히려 1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즉 나이가 든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이동자들도 있지만 이들보다는 취업이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갔다가 낙향한 젊은 층의 인구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마찬가지로 혼인상태별 분포도 이동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동자의 경우 “1회 이동자(최근)”중에는 미혼자가 가장 많고, 나머지 이동자 유형에서는 유배우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취업과 더불어 중요한 거주지 이동요인중의 하나이다. 이동자 및 비이동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비이동자중에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의 비율(12.1%)이 이동자(5.9%)에 비해 훨씬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층의 비율은 이동자에게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동유형별로 살펴 보면 이동횟수가 많은 “반복이동”의 경우 대학이상 졸업자(중퇴 포함)의 비율이 21.1%로 다른 이동유형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이나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인구이동을 유발시키는 주된 이유중 하나임을 뒷받침해 준다. 이에 반해 “1회 이동(정착)”의 경우는 교육정도가 낮은(중졸 이하) 층의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재학생의 경우를 보면 “1회 이동자(최근)”와 “귀환이동자”중 초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초등학생들은 살아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상황에 덜 노출되며 또한 이들은 아직 어려서 부모와 동반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이동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도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우리나라 인구의 통근·통학 현황(1995)

- 1.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 현황**
- 2. 주간인구**
- 3. 통근·통학 흐름**
- 4.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
- 5. 통근·통학자의 교통이용실태**
- 6. 성별 통근·통학 실태**

III. 우리나라 인구의 통근·통학 현황

자 료

통근·통학에 관한 항목은 1980년에 처음으로 추가된 이후 199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된 항목으로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통근·통학¹⁾과 관련된 조사 항목으로 출발시간대를 제외한 통근·통학여부 및 장소, 이용교통수단과 통근통학 소요시간 등 3가지가 조사되었다. 통근·통학 항목은 만 12세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통근·통학여부 및 장소」는 우선 통근·통학여부를 파악하고 추가로 통근통학하는 경우 어디로 통근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으로 이 항목의 분석을 통하여 통근·통학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근학장소는 ①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내, ②같은 시·군·구내 다른 읍·면·동, ③다른 시·군·구로 구분하여 조사되었고, 통근학지명(행정구역)은 시·군·구단위에서만 파악되었다. 따라서 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통근·통학 분석은 읍·면·동간 통근학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이용교통수단」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것으로 2개 이상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교통수단 2가지를 파악하였다.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평소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 또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것으로 소요시간대별로 파악되었다.

1) 통근·통학이란 “살고 있는 거처이외의 사업장, 직장, 학교, 학원 등을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를 말함.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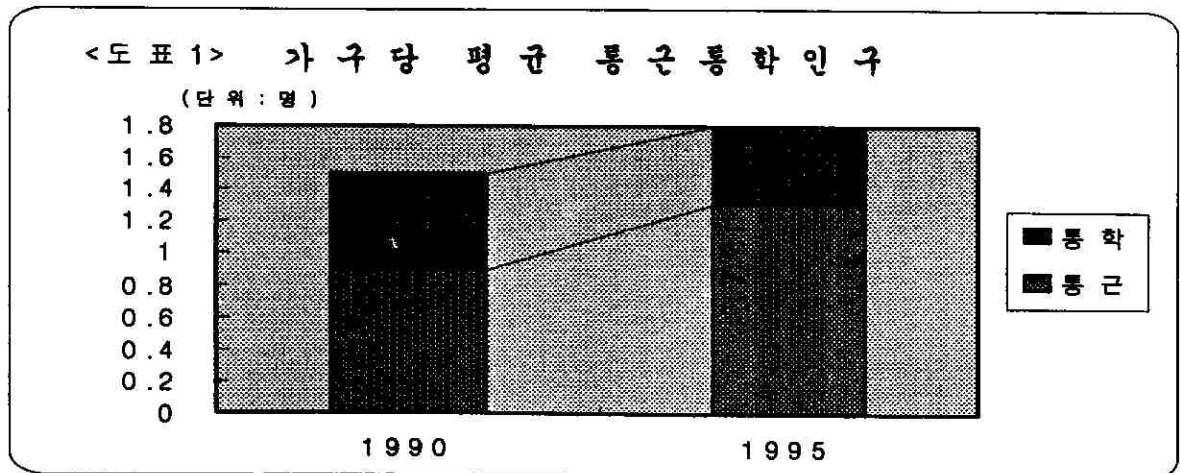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 현황

(1) 통근·통학인구규모 및 통근·통학율

1995년 현재 우리나라 12세 이상 인구중 통근·통학인구는 총 23,04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4%가 정기적으로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5년전인 1990년과 비교해 볼 때 12세 이상 인구는 2,106천명(6.2%) 증가한데 반해 통근·통학인구는 6,013천명(35.3%)이나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통근·통학율도 5년 사이 13.7%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통근·통학인구를 통근과 통학으로 구분하여 보면 통근인구는 1995년 현재 16,240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5,576천명(52.3%)이 늘어났으며, 통학인구는 6,804천명으로 1990년 통학인구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표2). 즉 지난 5년간 통근·통학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결국 통근인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가구당 평균 통근·통학자수는 1.8명으로 1990년에 비해 0.3명이 늘어났으며, 지난 5년사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를 감안할 때 가구내의 통근·통학자 비율은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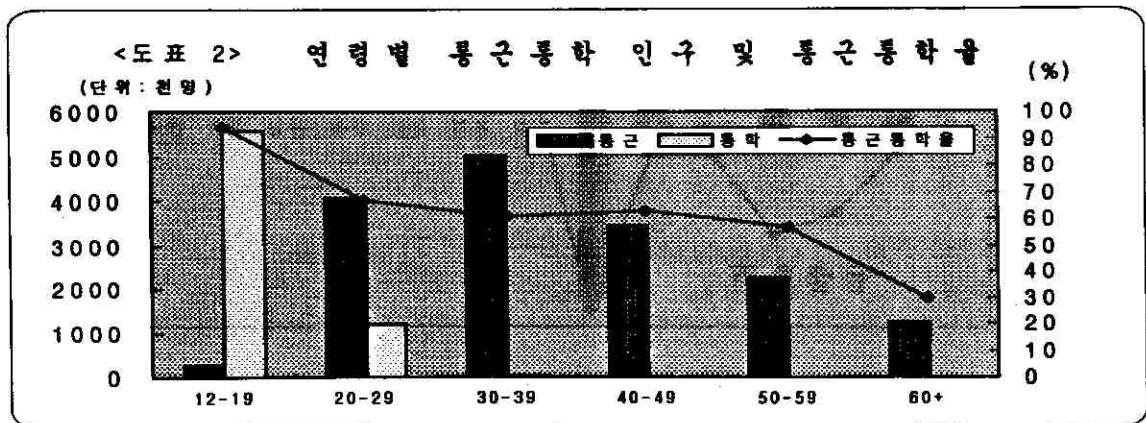
가구당 평균 통근·통학자수를 통근과 통학으로 나누어 보면 통근자는 평균 1.3명으로 1990년에 비해 0.4명 증가하였고, 통학자는 평균 0.5명으로 오히려 0.1명 줄어들었다. 가구당 평균 통근자수의 증가는 가구당 취업자수의 증가와 같은 맥락으로 기혼여성의 취업 등 가구주의 가구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며, 가구당 평균 통학자수가 감소한 것은 출산력의 저하로 평균 출생자녀수가 감소하였고, 아울러 가구당 부모와 함께 사는 평균 동거자녀수도 감소(1.6명→1.3명)하였기 때문이다.

(2) 성·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및 통근·통학율

통근·통학인구를 남녀별로 보면 12세 이상 남자인구중 통근학하는 인구는 14,341천명, 여자는 8,703천명으로 통근통학자중에는 남자가 훨씬 많으며, 통근·통학율도 남자(81.9%)가 여자(47.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표1).

그러나 1990년과 비교해 볼 때 통근·통학인구의 증가율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이는 점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고 있고 상급학교로의 진학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 통근자수는 지난 5년간 무려 2,452천명(80.6%)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주로 학생층인 12~19세의 통근·통학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근·통학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표2). 이것은 통학인구가 10대와 20대층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3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통근인구의 경우도 40대를 정점으로 하여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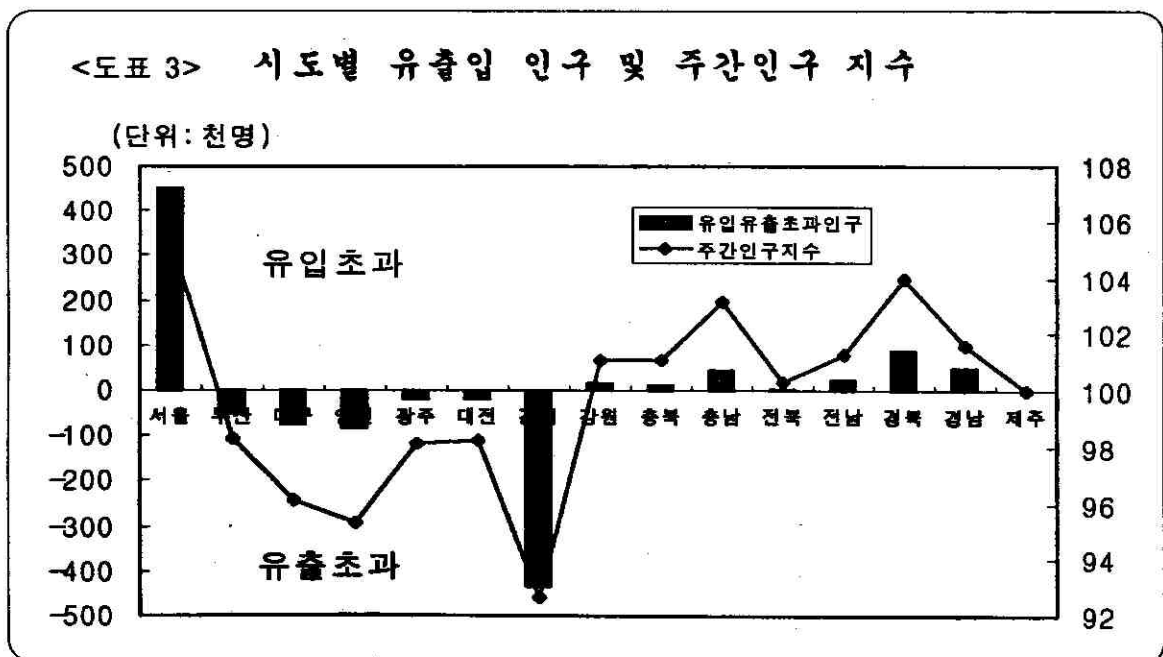


성·연령별 통근·통학율을 보면 통근율의 경우 남자는 30대가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여자는 결혼 및 출산문제 등으로 인한 낮은 경제활동참여 때문에 30대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통학율은 학령기인 10대에서는 남녀 모두 9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대의 통학율은 남자가 18.9%, 여자 11.5%로 남자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2. 晝間인구

(1) 시도별 주간인구

1995년 현재 12세 이상의 통근·통학인구중 살고 있는 시도를 벗어나 다른 시도로 통근학하는 사람들은 2,162천명으로 전체 통근·통학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다(표4). 시도간 통근·통학인구는 1990년(1,485천명)보다 677천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전체 통근·통학인구에 대한 비율도 0.7% 포인트 증가하였다.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할 때 시도별로 시도간 통근·통학인구의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나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통근학인구의 증가와 반대로 경기도에서 유출되는 통근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시도간 통근·통학현황을 시도별로 살펴 보면, 우선 서울은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971천명으로 매일 10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서울로 들어오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나가는 통근·통학인구는 519천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에는 낮동안 常住인구(12세 이상)보다 452천명이 더 많은 8,873천명이 붐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주인구에 대한 주간인구의 비율인 주간인구지수는 105로 시도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1990년과 비교하면 최근 5년동안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295천명이나 늘어났고,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나가는 인구는 163천명이 늘어나, 서울시의 주간인구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경기의 경우는 타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934천명)가 경기지역으로 들어오는 통근·통학인구(498천명)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주간인구지수(93)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경기도는 새로 개발된 신도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통근·통학인구의 유출초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도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유출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약간 더 많으나 시도간 통근·통학인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경기 다음으로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95을 나타내며, 인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유입인구의 두 배에 가까운 통근·통학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높고, 경기와 인천이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시도간 경계를 넘는 통근·통학현상은 수도권지역안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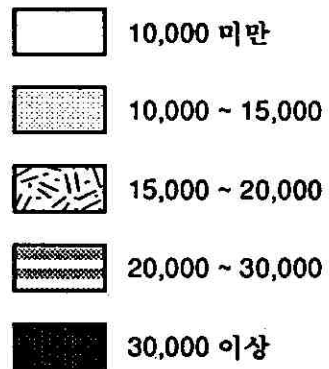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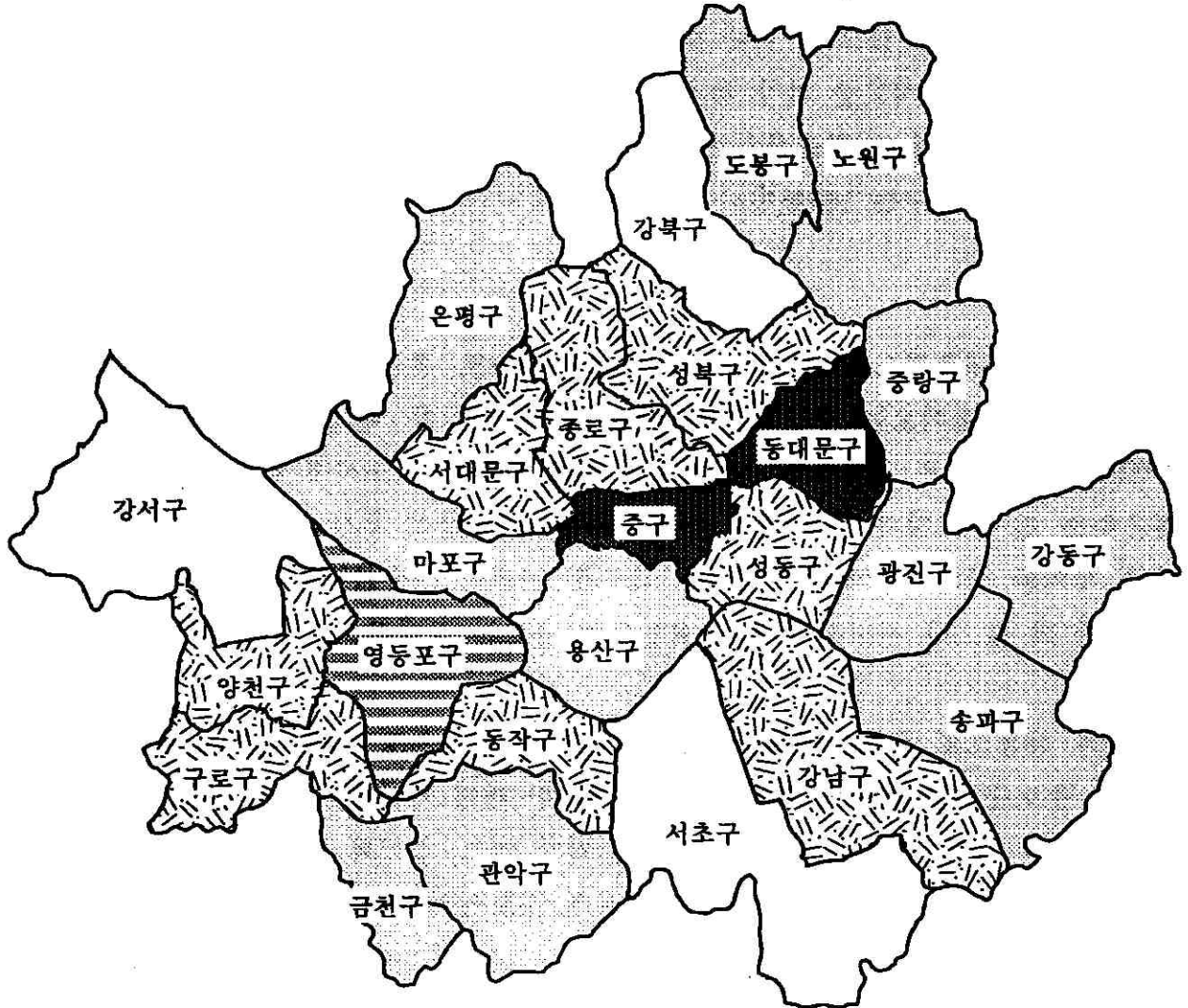
서울, 인천을 제외한 대도시의 경우는 산업시설, 교육시설 등의 도시외곽 이동에 따라 오히려 통근·통학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어 100 이하의 낮은 주간인구지수를 나타낸다.

(2) 대도시의 구(군)별 주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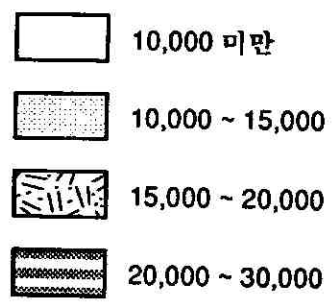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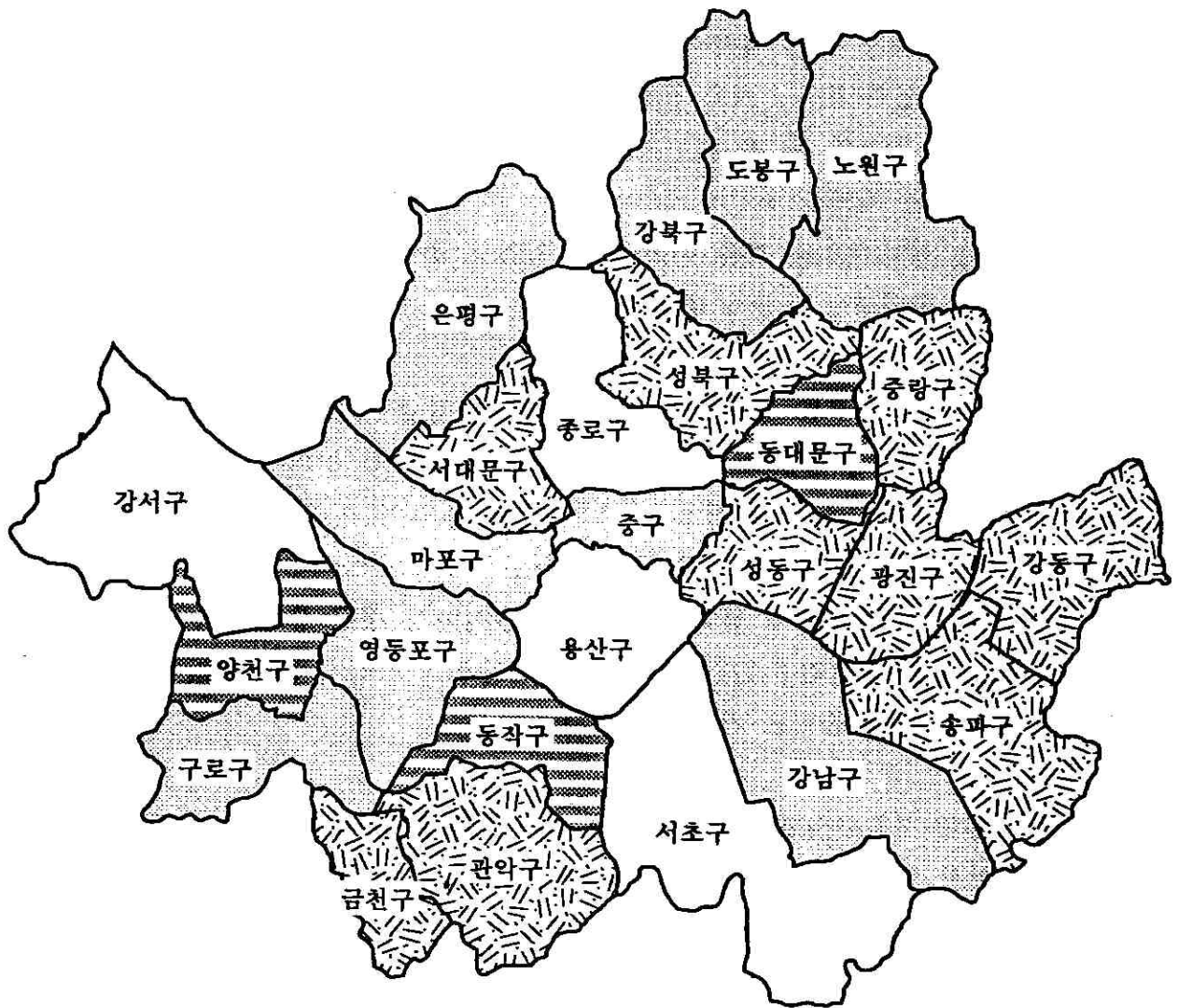
우리나라 각 시도의 개별 시군구에서는 시군구간 통근·통학자들의 유동흐름에 따라 주간인구가 크게 차이난다. 이러한 시군구별 주간인구를 6개 대도시의 구

<도표 4> 서울시 구별 주간 및 야간 인구밀도

주간인구밀도



야간인구밀도



(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서울시의 경우 통근·통학인구의 유입초과가 가장 큰 구는 강북의 中區로 매일 366천명이 중구로 통근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구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28천명에 불과하다(부록 참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상주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중구의 주간인구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395를 나타내고 있다(표5). 서울시 중구이외에도 부산시 중구(249), 인천시 중구(191), 대구시 중구(167) 등 각 대도시별로 중구의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중구는 지역의 특성상 주거지역보다는 기업체, 상업시설 등이 몰려 있어 상주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유출인구에 비해 유입되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유입인구가 많은 구를 순위별로 보면, 서울시 강남구(416천명)가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구(366천명), 영등포구(284천명), 종로구(275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부록 참조).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상주인구도 많지만 상주인구규모와 비슷한 양의 통근·통학인구 유입으로 인해 낮동안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주간인구(강남구 유출인구 제외)가 726천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통근·통학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구는 부산진구(122천명)이며, 부산진구도 부산시에서 주간인구가 가장 많아 낮동안 가장 붐비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통근·통학유입보다 유출인구가 많아 주간인구지수가 낮은 지역을 꼽아 보자면, 인천시 연수구(64), 서울시 강북구(69) 등으로 이 지역들은 통근·통학유출인구가 유입인구의 4배 이상이나 된다(표7).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인구밀도는 면적 1Km²당 常住하는 인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夜間인구밀도”로 볼 수 있다면, 낮동안의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晝間인구밀도”를 산출해 볼 수 있다. 즉 주간인구밀도는 그 지역의 면적 1Km²당 주간인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낮동안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비교·평가할 수 있다.

전국의 구별로 주간인구밀도를 비교해 보면, 주간에 가장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은 부산시 중구로 1Km²당 48,79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중구도 비슷한 수준인 1Km²당 45,404명으로 높게 나타난다(표5). 특히 서울시 중구의 경우는 주간과 야간인구밀도의 차이가 무려 33,905명으로 주야간인구가 대조적인 지역이며, 부산시 중구의 주야간인구밀도도 큰 차이(29,194명)를 보인다.

3. 통근·통학 흐름

(1)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통근·통학 흐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통근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시도간 통근·통학과 서울시내 구간 통근·통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우선 수도권지역의 시도간 통근학 흐름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통근학자들이 서울시내로 유입되는 패턴이 주를 이룬다. 서울은 인천으로부터 120천명, 경기로부터 838천명의 통근학인구를 유입하고 있어 매일 10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서울시 경계를 넘어 서울로 통근학하고 있는 셈이다(표8). 인천이나 경기의 입장에서는 인천의 경우 전체 통근·통학인구(1,139천명)중 10.5%, 경기의 경우 전체 통근·통학인구(3,743천명)의 1/4에 가까운 22.4%를 서울로 유출시키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로 통근학하는 인구는 469천명으로 서울 통근·통학인구의 8.6%에 해당된다. 이중 인천으로 가는 통근학자는 59천명, 경기로 가는 통근학자는 411천명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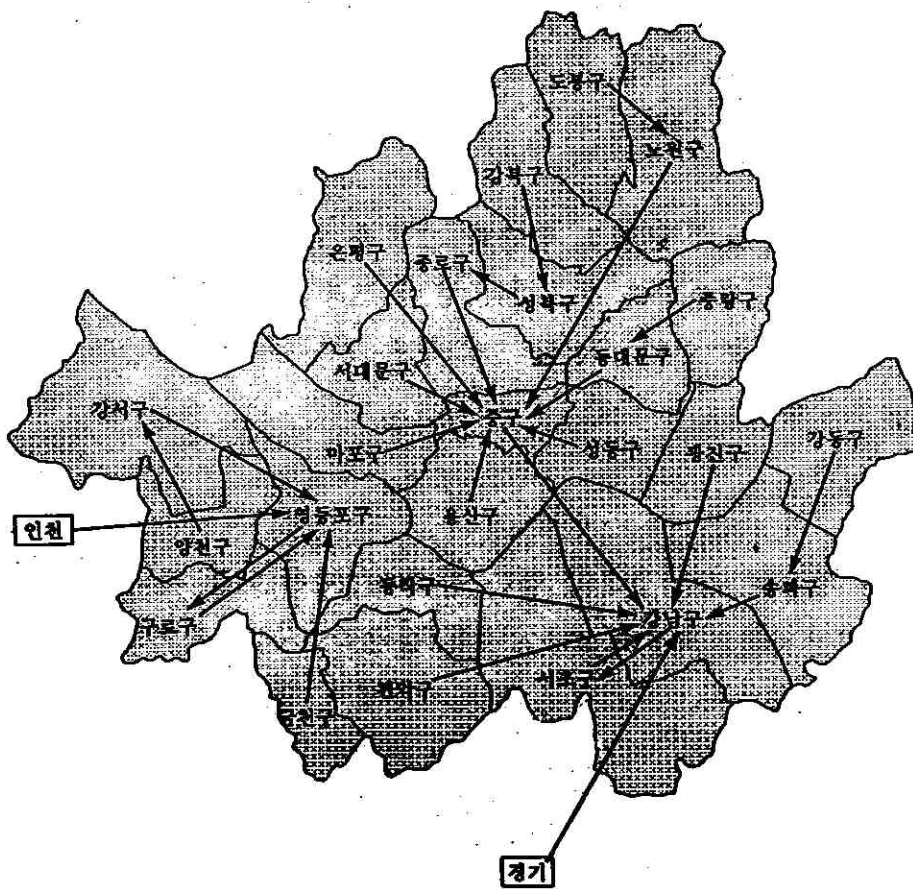
서울시를 좀 더 세분하여 구별로 통근학 흐름을 파악해 보면, 서울시내의 통근학과 주변 수도권 시도로부터의 통근학 흐름이 크게 서울시의 3개 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3개 구는 강남지역의 강남구, 강북의 중구, 강서의 영등포구로 서울시 다른 구나 시외로부터 가장 많은 통근학 인구를 유입하고 있다.

우선 강남구의 경우는 강남구내의 통근·통학자(162천명)를 제외하고 강남구의 다른 구나 경기·인천지역으로부터 414천명의 통근학인구를 유입하고 있으며, 유입인구의 26.3%에 해당하는 109천명은 경기지역에서 통근학하는 인구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송파구(40천명), 서초구(23천명), 관악구(22천명), 강동구(19천명) 등 강남에 위치한 근접 구에서 강남구로 통근학하는 인구가 많으며, 강북의 노원구, 광진구(각각 15천명씩), 성동구(13천명) 등에서도 상당수의 통근학자가 강남구로 유입되고 있다.

강북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시내 다른 구나 경기·인천지역으로부터 365천명의 통근학인구를 유입하고 있다. 중구 또한, 경기에서 유입되는 통근학인구가 68천명(18.6%)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내의 노원구, 성동구(각기 19천명씩), 은평구(18천명), 성북구(17천명) 등에서도 비교적 많은 통근학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강남쪽에서는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각기 13천명씩) 등에서 중구로 통근학하는 인구가 많은 편이다.

강서에 위치한 영등포구의 경우는 284천명이 영등포구로 통근학하고 있는데, 이들중 77천명(27.3%)은 경기지역에서 통근학하는 인구로 가장 많으며, 인천지역에서도 19천명 가량의 통근학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내에서 영등포구로 통근학하는 인구중에는 양천구(22천명), 강서구(20천명), 구로구(17천명), 관악구(16천명) 등 근접한 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

<도표 5> 서울시 통근·통학 흐름



서울시는 한강에 의하여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강남·강북간의 이동은 한강의 24개 교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교량에서의 교통혼잡이 통근·통학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량에서의 교통상태는 결국 강남북간 통근·통학 인구규모와 통근·통학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남북간을 가로질러 통근·통학하고 있는 인구는 864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통근·통학인구는 492천명,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인구는 372천명으로 강남→강북방향의 통근·통학인구가 120천명이나 더 많다(표9).

(2) 광역시의 통근·통학 흐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개 광역시의 시도간 통근·통학 흐름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통근·통학인구유입보다 시외곽으로의 통근·통학인구유출이 많다는 것이다(표10-1).

광역시별 유출인구를 통근과 통학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통근자의 경우는 광역시로 유입되는 통근자보다는 광역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훨씬 많으며 이는 시외곽지역에 산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표10-1). 이를 통해 볼 때 서울·경기지역과는 반대로 지방 대도시들이 아직은 시외곽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베드타운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학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방 대도시들이 유출보다는 주변 시외곽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통학인구가 훨씬 많으나, 대구는 유출 통학자수(43천명)가 유입 통학자수의 3배 이상에 달한다.

광역시 통근·통학인구가 주로 어디로 유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부산시의 경우는 경부선을 따라 양산군, 김해시와 산업시설이 많은 울산시와 창원시 등으로 주로 통근·통학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는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산시와 산업지역인 구미시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다(표10-2). 인천은 이미 앞서서도 보았듯이 지하철 1호선을 따라 부천시, 서울 영등포구 등으로 가는 통근·통학인구가 많다.

4.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 (6개 대도시)

(1) 대도시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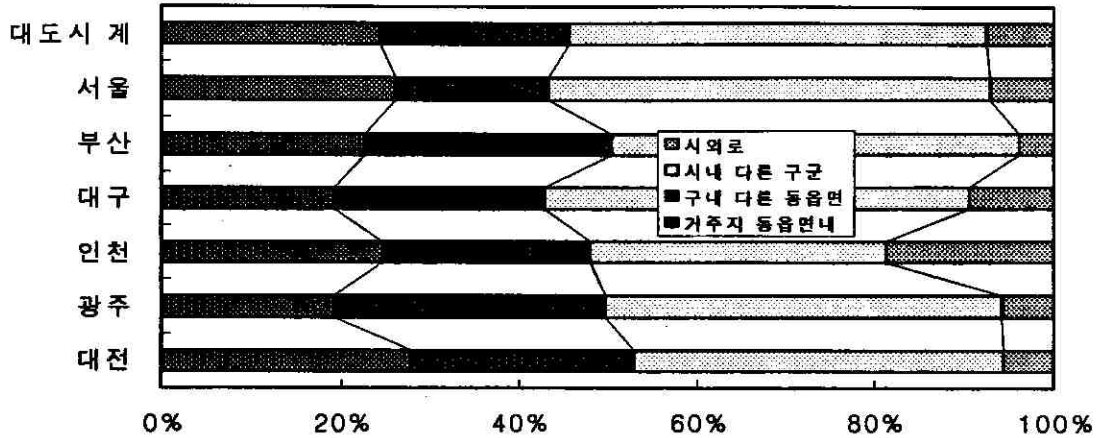
6개 대도시 통근·통학인구의 거주지와 통근학지간 이동구간을 보면 1995년 현재 전체 통근·통학인구 10,973천명중 거주하는 洞(邑面)내에서 통근학하는 인구가 18.5%, 거주지 區(郡)내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학하는 인구가 31.0%로 반수가 가까이 구(군)내에서 통근학하고 있으며, 시내 다른 구(군)로 통근학하는 인구는 41.1%, 시외로 나가는 통근학인구는 9.4%를 차지하고 있다(표11).

1990년에 비하면 거주지 동(읍면)내에서 통근학하는 비율은 $\Delta 5.9\%$ 포인트 감소하였고, 구내 다른 동(읍면)으로 통근학하는 비율은 9.8% 포인트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구(군)내 통근학자의 비율은 3.8% 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반해 다른 구(군)로 통근학하는 구(군)간 통근학자의 비율은 감소($\Delta 5.7\%p$)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외로 나가는 비율은 1.8% 포인트 증가하였다.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을 대도시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상주하는 통근학자의 경우 서울시내에서 통근학하는 인구는 4,922천명, 시외로 장거리 통근학하는 인구는 519천명으로 서울시 통근학자의 90.5%는 서울시내에서 통근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통근학자의 이동구간을 좀 더 세분하여 보면 거주지 洞내에서 통근학하는 인구가 1,022천명(18.8%), 거주지 區내 다른 동으로 통근학하는 인구가 1,454천명(26.7%), 다른 구로 통근학하는 인구는 2,445천명(45.0%)으로 집계되었으며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시의 경우는 區간 통근·통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부산시는 전체 통근·통학자 1,926천명중 시내에서 통근학하는 사람이 94.5%를 차지, 시외로 통근학하는 비율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는 서울로 가는 통근학자가 많아 시외로 통근학하는 인구의 비율(17.6%)이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높다.

<도표 6> 대도시 통근통학 이동구간



(2)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간 불일치도

보통 거주지 洞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경우 직장(학교)과 거주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통근·통학인구의 직장(학교)과 거주지간 불일치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에 따른 통근·통학자의 비율로 측정해 볼 수 있다. 통근·통학지가 거주지 동에서 벗어나 멀리 다른 동이나 다른 구로 통근·통학할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직장(학교)과 거주지간 불일치도는 통근·통학자들의 교통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1995년 현재 6개 대도시 통근·통학인구중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즉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가 같은 洞인) 인구의 비율은 18.5%,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81.5%로 불일치도가 상당히 높다(표12). 1990년과 비교해 보면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인구는 1,808천명이나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직장(학교)과 거주지간 불일치율이 6.0%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간 불일치율의 증가는 교통수요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교통이용의 증가로 인한 대도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대도시별로 보면 통근·통학자중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광주(84.1%)와 대구(83.9%)로 나타났으며, 1990년에 비해 직장(학교)과 거주지간 불일치도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8.4%p), 서울(7.4%p), 인천(6.3%p)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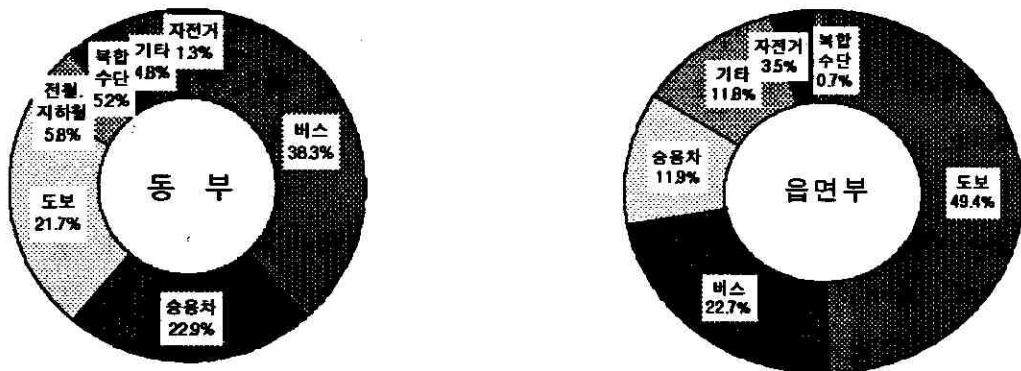
5. 통근·통학자의 교통이용실태

(1) 이용교통수단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인구는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시내(외)버스 등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보(28.2%), 승용차(20.3%)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표13).

이용교통수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도시에 해당하는 洞部의 통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버스, 승용차, 전철·지하철, 택시 등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邑面部 농촌지역에서는 도보나 자전거, 트럭 등 기타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통근학인구의 환승율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4.2%로 나타났으며, 도시에서는 통근학인구의 5.2%가 교통수단을 갈아타면서 통근학하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0.7%만이 환승하고 있다.

<도표 7> 지역별 이용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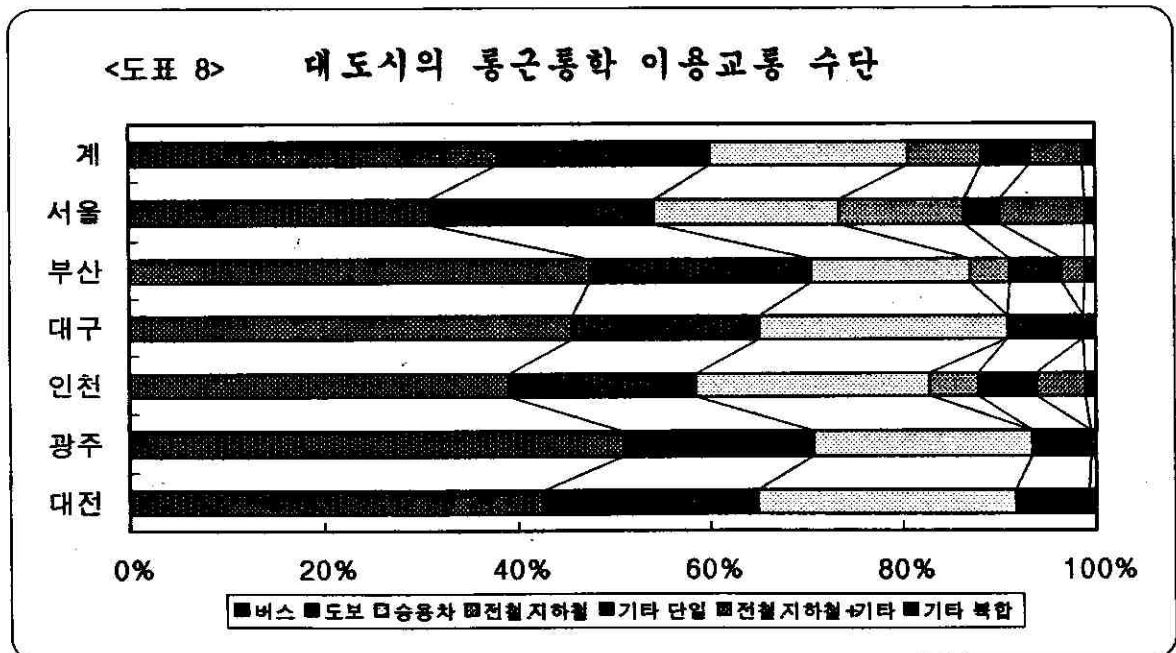


1) 대도시 통근·통학자의 이용교통수단

대도시 통근·통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38.0%로 가장 많고, 도보로 통근학하는 사람이 22.3%, 승용차 이용이 20.6%를 차지하고 있다(표14).

대도시별로 우선 서울의 통근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버스로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보가 23.5%, 전철·지하철이 13.0%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다른 대도시들의 경우는 통근·통학자중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서울보다도 훨씬 높으며, 승용차로 통근학하는 비율도 대전을 비롯하여 지방 대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승용차의 경우는 도시규모가 큰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용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인구규모가 커질수록 교통난이 더욱 심각하게 되어 승용차 이용율이 감소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철·지하철 등의 교통수단 발달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근학자중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을 타는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 통근학자중에는 6.4%가 복합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전철·지하철을 갈아타는 통근학자들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근학자의 비율(10.0%)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며, 전철·지하철 환승자도 8.8%나 된다. 인천도 전철·지하철 환승율이 5.1%로 높은 편이다.



서울, 부산, 인천지역에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복합수단을 이용하는 통근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환승자들은 주로 전철·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시내버스나 기타 버스(마을버스 등)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로, 이를 통해 볼 때 복합교통수단 이용자의 증가는 전철·지하철의 건설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전철·지하철 이용자중 환승율이 높은 것은 전철·지하철 접근이 아직도 용이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이는 전철·지하철 건설시 복합교통수단 이용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구축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도시 통근·통학자들의 이용교통수단을 이동구간별로 살펴 보면, 거주하는 동(읍면)내에서 통근학하는 인구중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76.5%로 가장 높다(표15). 한편 거주하는 구내의 다른 동(읍면)이나 시내 다른 구(군)로 통근학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시외로 통근학하는 경우는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거주하는 구(군)를 벗어나 다른 구(군)나 시외로 장거리 통근학할수록 승용차나 전철·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다.

2) 통근인구의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인구를 분리하여 통근인구가 과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통근인구의 특성별로 이용수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통근인구의 이용교통수단을 보면 승용차로 통근하는 사람이 27.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버스나 도보로 통근하는 비율도 높다(표16).

통근자의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버스나 도보로 통근하고 있으며, 20대는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41.2%)이 가장 높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21.4%나 된다. 10대나 20대 젊은 연령층의 통근자들은 나이가 더 많은 통근자에 비해 버스나 전철·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30대 통근자들은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으로 40.5%가 승용차로 통근하고 있으며, 40대의 경우도 승용차 이용이 비교적 많다. 이후 50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통근자들중에는 도보로 통근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의 비율도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물론 이용교통수단은 통근자가 다니는 직장의 위치나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근자의 직업(표준직업분류)별로 이용교통수단을 보면 크게 차이를 보인다. 우선 통근시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관리직 종사자들로 이들중 71.3%가 승용차로 통근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중에도 반 수 이상인 51.0%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표17). 직업계층이 높은 이 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버스나 전철·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사무직이나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난다.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직업군은 기계조작 및 조립원과 단순 근로자들로 50% 가량이 대중교통(특히 버스)을 이용하여 통근하고 있으며, 사무직 종사자들중에도 46.7%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사무직원과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경우 전철·지하철 이용율이 각각 9.5%, 8.4%로 타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농어업숙련 근로자는 일하는 곳이 집 근처인 경우가 많아 75.3%가 도보로 통근하고 있으며,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시장 판매근로자의 경우도 도보로 통근하는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3) 통학인구의 이용교통수단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이용교통수단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걸어서 통학하고 있으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11.8%나 된다(표18). 중학생들은 주로 걸어서(47.7%) 통학하거나 시내버스(42.3%)를 이용하여 통학하며, 다른 학교급에 비해 자전거로 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등학생부터는 도보로 다니는 비율이 20.4%로 크게 떨어지며, 대신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비율이 60.8%로 학교급중 가장 높은 시내버스 이용율을 보인다.

고등학교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용교통수단이 획일적으로 나타나나 초·중·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용교통수단이 다양해진다. 시내버스 이외에도 전철·지하철 이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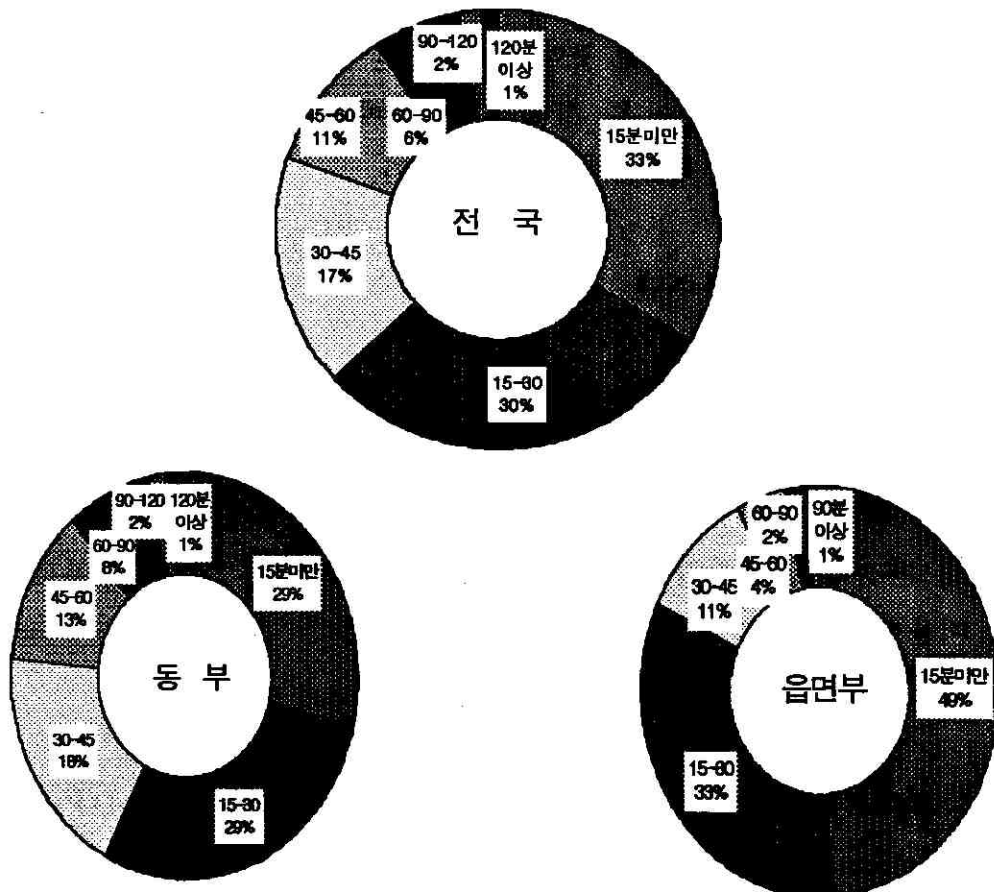
이 10% 이상을 웃들며,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대학생의 경우 3.3%, 대학원생중에는 17.6%나 된다.

(2) 소요시간

1)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우리나라 통근·통학인구의 통근·통학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통근·통학인구의 63.4%가 통근·통학하는데 30분 미만을 소요하고 있으며, 30분~1시간 미만이 27.4%, 1시간~2시간 미만이 8.0%로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 소요하는 통근·통학자도 1.1%나 된다(표19). 통근·통학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32분이며, 洞部는 평균 34분, 邑面部 지역은 평균 2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0):

<도표 9>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시도별로는 6개 대도시의 통근학 소요시간이 9개도보다 훨씬 길게 나타난다(표19). 특히 서울의 경우 통근학 소요시간이 30분 미만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48.8%이고, 반면에 1시간~2시간 미만이 13.0%, 2시간 이상이 1.7%로 통근학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서울은 통근학 이동거리로 볼 때 서울시내 구간 통근·통학이 50%에 가까운 도시로 시도 중 통근학 소요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시내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해 준다.

시도별 평균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38분으로 가장 길고, 인천이 37분, 경기도가 35분으로 수도권에서의 통근학 소요시간이 수도권의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표20). 수도권의 시도의 경우는 부산과 대구가 평균 34분 정도, 나머지 시도에서는 30분 이하로 나타난다.

2)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및 통학 소요시간

통근·통학자의 이용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통근과 통학으로 분리하여 보았다. 먼저 통근자들이 통근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32분이며, 이를 이용교통수단별로 보면 기차를 이용하는 통근자의 평균 소요시간이 78분으로 가장 긴데,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외로 나가는 장거리 통근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좌석버스나 전철·지하철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평균 51분을 소요하고 있다(표21). 시외로 통근하거나 구(시군)간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승용차는 평균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동거리가 길더라도 대중교통수단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근자의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66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합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통근자가 많겠지만, 단일수단의 평균 소요시간(30분)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의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 환승거리가 길고 교통 연계수단의 운용이 아직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평균 31분으로,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평균 17분, 중학생은 21분, 고등학생은 30분, 대학생 49분 등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은 길어지는데 이는 상급학교일수록 통학지가 멀어지기 때문이다(표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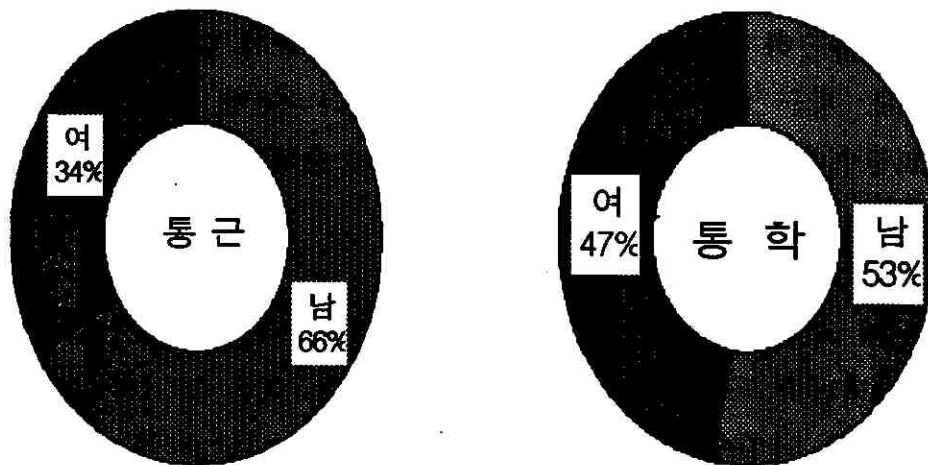
6. 성별 통근·통학 실태

(1) 성별 통근·통학인구

1995년 현재 통근·통학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62.2%, 여자가 37.8%로 남자가 훨씬 많다(표23). 이를 통근과 통학으로 분리해 보면 통근인구중 남자는 66.2%, 여자는 33.8%로 2/3 가량이 남자이며, 통학인구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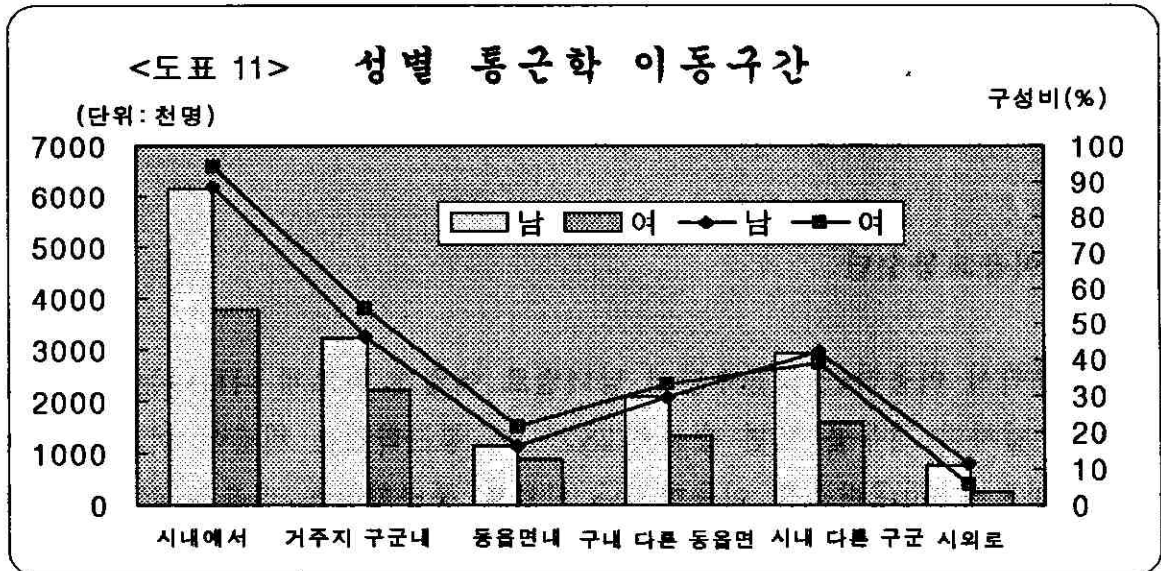
1990년과 비교해 보면 통근·통학인구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4% 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주로 여자 통근인구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5.3%p)했기 때문이다.

<도표 10> 성별 통근·통학 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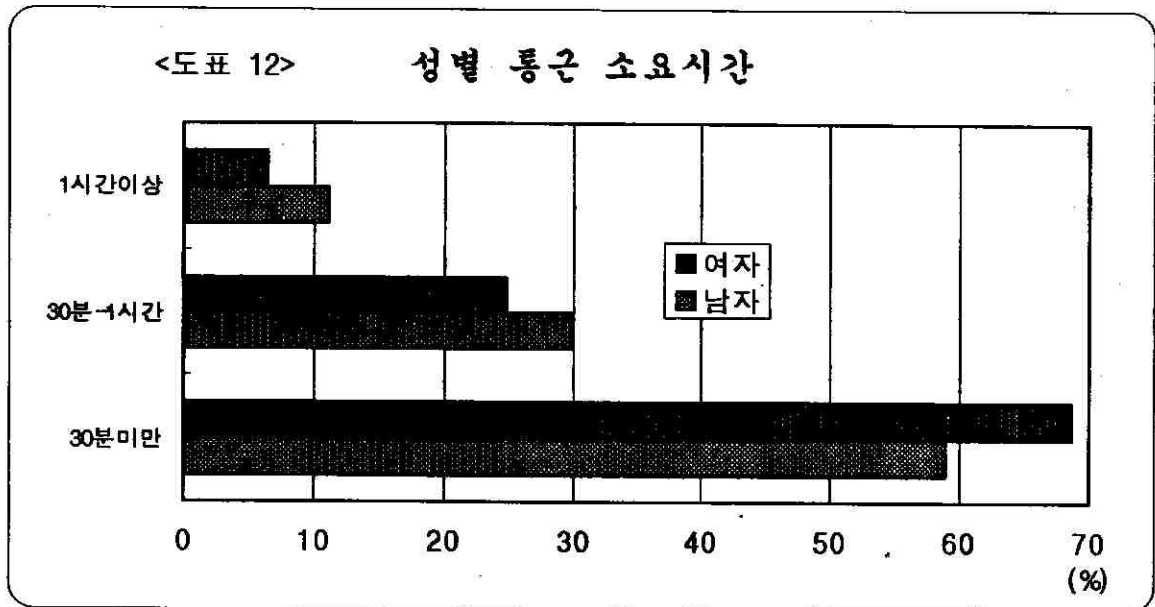
(2) 성별 통근·통학자의 이동구간(6개 대도시) 및 소요시간

통근학지에 따른 이동구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남자의 경우는 거주하는 구(군)내에서 단거리 통근학하는 비율이 46.4%로 여자(54.7%)보다 낮게 나타나며, 시외로 통근학하는 비율이 11.4%나 된다(표24). 이동구간별 남녀 통근·통학자의 구성비를 보면 여자는 거주지와 통근학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성비가 높고 멀어질수록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으며, 남자는 통근학지가 먼 경우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인다. 이는 주거지 선정에 있어 남자보다는 여자가 통근학지와의 거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로 부인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지와 통근학지간의 이동구간에 있어 성별 차이로 인해 통근학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 남자 통근학인구는 통근학하는데 평균 33분을 소요하는 반면, 여자는 29분으로 남자의 소요시간이 4분 더 길게 나타난다(표25). 통학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가 별로 없으나 통근에 있어서는 남녀 소요시간차가 5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통학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학지(학교)의 선정이나 통학지에 따른 주거지의 선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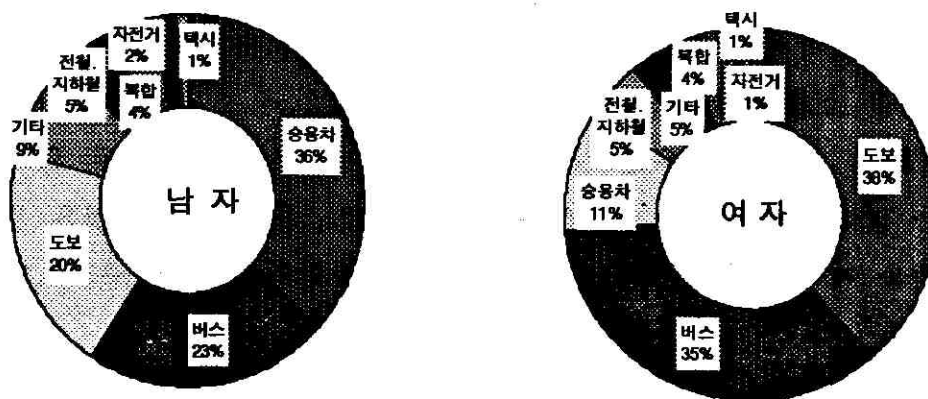
학생의 성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나, 통근자의 경우는 통근지나 주거지를 정할 때 성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3) 성별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남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았다. 우선 남자의 경우를 보면 승용차(28.2%)로 통근학하는 비율이 여자(7.3%)보다 훨씬 높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통근학하는 비율은 여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표26). 환승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도표 13> 성별 이용교통 수단



성별 이용교통수단을 통근과 통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통학의 경우 성별에 따른 이용교통수단의 차이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버스 이용율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자전거나 승용차 이용율은 남학생이 더 높다. 통근자의 경우는 통학자보다 성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자 통근자중 73.6%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통근하고 있으며, 이는 남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한편 남자 통근자중에는 승용차로 통근하는 비율이 36.7%나 된다.

IV. 통 계 표

1. 거주지 이동

<표1> 출생지(시도)별 인구 및 출생지 거주인구비율

(단위:천명, %)

출생지	1970	1980	1990	1995
전국	31 435 (79.0)	36 791 (69.8)	42 708 (58.7)	43 836 (55.7)
서울	2 654 (89.9)	4 143 (82.4)	6 035 (75.5)	6 490 (67.4)
부산	1 113 (83.7)	1 639 (81.0)	2 283 (74.8)	2 583 (70.4)
대구	- (-)	- (-)	1 303 (72.0)	1 604 (71.0)
인천	- (-)	- (-)	867 (75.2)	1 230 (73.3)
광주	- (-)	- (-)	744 (67.6)	859 (63.8)
대전	- (-)	- (-)	625 (71.4)	721 (68.0)
경기	3 224 (76.5)	3 875 (72.4)	422 (65.7)	4 366 (68.4)
강원	1 886 (81.1)	2 133 (66.7)	2 241 (53.1)	2 237 (48.2)
충북	1 771 (73.6)	1 964 (60.4)	2 117 (49.9)	2 113 (47.0)
충남	3 368 (76.4)	3 786 (65.4)	3 556 (46.9)	3 367 (40.5)
전북	2 806 (80.9)	3 061 (67.8)	3 255 (55.4)	3 193 (50.4)
전남	4 601 (84.5)	5 025 (70.7)	4 733 (47.2)	4 496 (40.0)
경북	5 088 (83.1)	5 749 (74.5)	4 945 (47.5)	4 741 (44.7)
경남	3 872 (75.0)	4 281 (64.2)	4 662 (59.2)	4 707 (59.0)
제주	377 (87.7)	470 (86.4)	531 (80.8)	529 (78.4)
기타	675 (-)	665 (-)	591 (-)	585 (-)
미상				15 (-)

<표2> 성, 연령별 출생지(시도)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 (1995)

(단위: 천명, %)

	계			남자			여자		
	총인구	출생지 거주인구	비율	총인구	출생지 거주인구	비율	총인구	출생지 거주인구	비율
계 ¹⁾	43 836	24 408	55.7	21 645	12 323	56.9	22 191	12 085	54.5
0-4세	3 428	2 932	85.6	1 822	1 562	85.7	1 606	1 371	85.3
5-9	3 096	2 362	76.3	1 627	1 245	76.5	1 469	1 117	76.0
10-14	3 711	2 760	74.4	1 913	1 419	74.2	1 798	1 340	74.5
15-19	3 798	2 663	70.1	1 922	1 347	70.1	1 876	1 316	70.2
20-24	3 713	2 169	58.4	1 648	990	60.1	2 065	1 179	57.1
25-29	4 110	1 876	45.6	2 051	991	48.3	2 059	885	43.0
30-34	4 221	1 661	39.4	2 137	891	41.7	2 083	770	37.0
35-39	4 126	1 638	39.7	2 096	874	41.7	2 030	764	37.6
40-44	3 065	1 227	40.0	1 574	654	41.5	1 491	573	38.4
45-49	2 460	1 020	41.5	1 258	536	42.6	1 202	484	40.3
50-54	2 062	898	43.6	1 027	443	43.1	1 035	455	44.0
55-59	1 912	940	49.2	923	451	48.9	990	489	49.4
60-64	1 495	794	53.1	673	357	53.1	821	436	53.2
65-69	1 044	566	54.3	421	235	55.8	623	332	53.2
70+	1 595	901	56.5	553	328	59.2	1 042	574	55.0

* 외국인, 특별조사구 인구는 제외

1) 연령미상 포함

<표3> 출생시도별 인구분포

(단위: 천명, %)

	현거주지별		출생지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43 836	100.0	43 836 ¹⁾	100.0
서울	10 057	22.9	6 490	14.8
부산	3 746	8.5	2 583	5.9
대구	2 406	5.5	1 604	3.7
인천	2 276	5.2	1 230	2.8
광주	1 235	2.8	859	2.0
대전	1 252	2.9	721	1.6
경기	7 547	17.2	4 366	10.0
강원	1 437	3.3	2 237	5.1
충북	1 372	3.1	2 113	4.8
충남	1 729	3.9	3 367	7.7
전북	1 860	4.2	3 193	7.3
전남	2 019	4.6	4 496	10.3
경북	2 623	6.0	4 741	10.8
경남	3 780	8.6	4 707	10.7
제주	495	1.1	529	1.2
기타	-	-	585	1.3

* 외국인 및 특별조사구 인구 제외

1) 출생지 미상을 포함한 수치임.

<표4> 대도시 인구의 출생시도별 분포(1995)

(단위: 천명, %)

출생시도	현 거 주 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43.5	2.0	1.7	10.6	2.3	5.6
부산	1.9	48.6	1.6	1.2	0.5	1.3
대구	1.2	1.3	47.3	0.7	0.2	0.9
인천	1.1	0.3	0.2	39.6	0.3	0.7
광주	1.2	0.3	0.1	0.7	44.4	0.5
대전	0.7	0.2	0.3	0.6	0.2	39.1
경기	8.1	0.9	0.8	9.2	0.9	3.0
강원	3.7	1.5	1.3	4.2	0.5	1.9
충북	3.8	1.2	1.1	3.4	0.3	9.4
충남	7.0	1.1	0.7	9.3	0.5	22.8
전북	7.0	1.6	0.7	4.8	4.0	5.5
전남	9.5	4.7	0.7	6.9	44.6	2.6
경북	5.4	8.9	35.3	4.0	0.4	3.5
경남	3.5	25.2	6.9	2.4	0.6	2.0
제주	0.4	0.5	0.1	0.2	0.2	0.2
외국	1.6	0.7	0.3	2.1	0.1	0.7
북한	0.5	1.0	0.7	0.2	0.2	0.4
미상	0.0	0.1	0.0	0.0	0.0	0.0

<표5> 이북출생 인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1995)

(단위: 천명, %, 여자100명당 남자수)

	계			남 자		여 자		성 비	
	인구	구성비	총인구 대비율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이북 출생자	총인구
계	404	100.0	0.9	222	100.0	182	100.0	121.7	100.7
40세 미만	2	0.4	0.0	1	0.4	1	0.4	119.0	106.2
40-49	43	10.6	0.8	25	11.1	18	9.9	136.5	105.5
50-59	111	27.6	2.8	61	27.6	50	27.6	121.8	96.4
60-69	139	34.4	5.5	77	34.6	62	34.2	123.4	75.8
70-79	88	21.8	7.2	49	22.2	39	21.4	126.1	59.5
80+	21	5.2	5.5	9	4.0	12	6.5	75.3	35.8

<표6> 이북출생 인구의 출생시도별 분포(1995)

(단위: 천명, %)

	계	황해도	평 남	평 북	함 남	함 북	경 기	강 원	총인구 대비율
전 국	100.0 (404)	33.7 (136)	17.8 (72)	13.3 (53)	15.9 (64)	5.9 (24)	10.6 (43)	3.0 (12)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서울	39.5	35.6	43.5	44.9	42.2	40.8	36.5	28.6	1.6
부산	6.9	4.3	7.2	6.9	14.4	9.2	2.4	6.2	0.7
대구	1.7	1.4	2.4	2.0	1.5	2.1	1.1	2.1	0.3
인천	11.9	18.5	8.0	7.6	4.4	6.6	18.6	6.3	2.1
광주	0.3	0.3	0.5	0.3	0.2	0.7	0.2	0.1	0.1
대전	2.2	2.2	3.5	2.3	1.3	1.5	1.6	2.3	0.7
경기	23.3	24.7	21.3	22.1	19.0	22.0	30.3	26.8	1.2
강원	4.8	2.8	4.3	4.5	9.2	6.7	1.4	16.9	1.3
충북	1.6	1.4	1.7	2.2	1.6	2.2	0.9	2.5	0.5
충남	2.2	2.6	1.9	2.2	1.1	1.9	3.1	1.6	0.5
전북	1.5	2.9	0.9	0.9	0.5	1.2	0.6	0.8	0.3
전남	0.7	0.7	0.6	0.3	0.5	0.7	1.4	0.8	0.1
경북	1.5	1.1	1.7	2.3	1.5	2.0	0.8	1.9	0.2
경남	1.7	1.3	1.9	1.5	2.5	2.2	1.2	3.2	0.2
제주	0.3	0.3	0.4	0.3	0.2	0.4	0.1	0.1	0.2

<표7> 인구이동 추이(5세이상 인구)

(단위: 천명, %)

	총이동	이동율(%)	시도내 이동 ¹⁾	시도간 이동
1985~1990 (구성비)	9 837 (100.0)	24.5	4 379 (44.5)	5 458 (55.5)
1990~1995 (구성비)	10 087 (100.0)	25.0	4 397 (43.6)	5 690 (56.4)

1) 시도를 벗어나지는 않고 시도안에서 구시군간 이동

<표8> 시도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천명)

	1985~1990		1990~1995			
	시도내 이동	시도간 순이동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서울	1 759	△44	1 438	1 003	1 928	△ 925
부산	451	25	522	229	460	△ 231
대구	310	79	387	245	226	19
인천	156	239	306	438	236	202
광주	85	64	136	188	129	58
대전	88	103	176	259	100	159
경기	453	730	622	1 901	754	1 148
강원	114	△176	92	140	240	△ 100
충북	88	△68	68	165	151	14
충남	73	△190	55	182	256	△ 74
전북	152	△186	109	116	204	△ 88
전남	112	△298	96	135	330	△ 194
경북	184	△208	112	257	330	△ 74
경남	329	△12	252	401	314	87
제주	26	△ 4	25	31	30	0

<표9-1> 6개 대도시 전입자(시도간)의 5년전 거주지별 분포(1995)

5년전 거주지	전 입 지 (현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	15.8	11.2	40.6	17.8	22.0
부 산	6.7	-	8.4	2.8	3.5	4.0
대 구	3.5	6.0	-	1.3	0.5	2.8
인 천	6.5	2.2	1.5	-	1.9	3.0
광 주	3.7	1.0	0.4	1.2	-	1.3
대 전	2.5	1.0	1.2	1.1	0.8	-
경 기	35.9	6.8	6.0	29.5	7.2	12.1
강 원	6.0	3.3	3.7	4.6	1.5	3.1
충 북	3.5	1.7	1.4	1.9	0.6	9.7
충 남	5.6	1.2	0.9	4.9	0.8	26.9
전 북	7.1	1.9	0.8	3.0	5.5	5.5
전 남	8.1	5.0	0.8	4.1	56.2	2.1
경 북	5.1	9.1	51.2	2.3	0.8	3.4
경 남	5.0	43.6	12.1	2.5	2.4	3.8
제 주	0.9	1.3	0.5	0.3	0.7	0.3

<표9-2> 9개도 전입자(시도간)의 5년전 거주지별 분포(1995)

5년전 거주지	전 입 지 (현거주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68.1	37.4	27.1	28.3	32.6	22.9	12.7	10.6	29.9
부 산	2.6	5.0	4.0	3.6	4.2	9.9	12.1	54.7	19.1
대 구	1.3	2.7	2.8	2.0	1.4	1.2	37.1	6.6	2.9
인 천	5.2	5.8	5.0	6.5	5.0	3.1	2.0	1.9	3.7
광 주	1.2	1.6	0.9	1.1	5.7	29.2	0.6	0.8	4.0
대 전	1.1	1.4	5.8	10.5	3.2	0.9	1.4	0.8	1.1
경 기	-	24.0	22.7	22.7	17.2	9.8	7.6	5.2	12.4
강 원	4.0	-	8.9	3.8	2.6	2.4	5.8	3.4	2.4
충 북	2.0	4.8	-	5.6	2.0	1.4	3.2	1.3	1.6
충 남	3.4	2.7	8.0	-	6.4	1.4	1.7	1.4	1.6
전 북	3.0	1.7	2.2	5.1	-	6.0	1.1	1.3	3.5
전 남	3.4	1.6	1.9	3.1	10.7	-	2.3	2.4	6.9
경 북	2.3	6.1	5.6	3.4	2.0	3.9	-	9.0	3.3
경 남	2.1	4.6	4.5	4.1	6.0	6.5	12.0	-	7.7
제 주	0.3	0.4	0.4	0.3	0.9	1.4	0.5	0.5	-

<표10-1> 6개 대도시 전출자(시도간)의 현거주지별 분포(1995)

현거주지	전출지 (5년전 거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	14.6	15.7	27.5	28.4	24.6
부산	1.9	-	6.1	2.2	1.8	2.2
대구	1.4	4.5	-	1.5	0.7	3.0
인천	9.2	2.7	2.5	-	4.1	4.7
광주	1.7	1.4	0.4	1.5	-	1.5
대전	3.0	2.3	3.2	3.3	2.6	-
경기	67.1	10.6	11.1	41.9	17.7	21.4
강원	2.7	1.5	1.7	3.4	1.7	1.9
충북	2.3	1.4	2.1	3.5	1.2	9.5
충남	2.7	1.4	1.6	5.0	1.6	19.1
전북	2.0	1.1	0.7	2.5	5.2	3.8
전남	1.6	2.9	0.7	1.8	30.6	1.3
경북	1.7	6.7	42.1	2.1	1.1	3.5
경남	2.2	47.6	11.8	3.3	2.5	3.3
제주	0.5	1.3	0.4	0.5	1.0	0.3

<표10-2> 9개도 전출자(시도간)의 현거주지별 분포(1995)

현거주지	전출지 (5년전 거주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47.7	25.0	23.4	22.0	34.7	24.7	15.5	15.9	31.1
부산	2.1	3.2	2.6	1.1	2.2	3.5	6.3	31.8	9.8
대구	1.9	3.8	2.3	0.8	0.9	0.6	38.0	9.4	3.8
인천	17.1	8.5	5.5	8.3	6.5	5.4	3.1	3.5	3.9
광주	1.8	1.2	0.7	0.6	5.0	31.9	0.4	1.4	4.3
대전	4.1	3.3	16.7	27.2	7.0	1.7	2.7	3.1	2.6
경기	-	31.4	25.7	25.6	27.7	19.8	13.2	12.5	17.7
강원	4.5	-	4.5	1.5	1.2	0.7	2.6	2.1	2.0
충북	5.0	6.1	-	5.2	1.8	0.9	2.8	2.4	2.4
충남	5.5	2.9	6.8	-	4.5	1.7	1.9	2.4	1.8
전북	2.7	1.2	1.5	2.9	-	3.8	0.7	2.2	3.3
전남	1.8	1.4	1.2	0.8	3.9	-	1.6	2.8	6.3
경북	2.6	6.2	5.4	1.7	1.4	1.8	-	9.8	4.0
경남	2.8	5.6	3.3	2.2	2.6	2.9	10.9	-	7.1
제주	0.5	0.3	0.3	0.2	0.5	0.6	0.3	0.7	-

<표11> 수도권지역의 인구이동(시도간) 추이

(단위: 천명, %)

	전 입			전 출		
	계	수도권내 시도에서	수도권외 시도에서	계	수도권내 시도로	수도권외 시도로
1985-1990						
수도권	3 161	1 656	1 505	2 278	1 656	621
(구성비)	(100.0)	(52.4)	(47.6)	(100.0)	(72.7)	(27.3)
서울	1 298	504	794	1 377	984	392
(구성비)	(100.0)	(38.8)	(61.2)	(100.0)	(71.5)	(28.5)
인천	411	262	149	174	130	44
(구성비)	(100.0)	(63.7)	(36.3)	(100.0)	(74.7)	(25.3)
경기	1 452	890	562	727	542	185
(구성비)	(100.0)	(61.3)	(38.7)	(100.0)	(74.5)	(25.5)
1990-1995						
수도권	3 342	2 125	1 217	2 918	2 125	793
(구성비)	(100.0)	(63.6)	(36.4)	(100.0)	(72.8)	(27.2)
서울	1 003	425	579	1 928	1 472	456
(구성비)	(100.0)	(42.3)	(57.7)	(100.0)	(76.3)	(23.7)
인천	438	307	131	236	164	72
(구성비)	(100.0)	(70.1)	(29.9)	(100.0)	(69.4)	(30.6)
경기	1 901	1 394	508	754	489	265
(구성비)	(100.0)	(73.3)	(26.7)	(100.0)	(64.9)	(35.1)

<표12> 수도권지역 전출자의 현거주지별 분포

(단위:천명, %)

현거주지	1985~1990		1990~1995	
	이동자	구성비	이동자	구성비
계	621	100.0	793	100.0
부산	71	11.4	57	7.2
대구	39	6.3	46	5.8
광주	34	5.6	50	6.4
대전	59	9.5	96	12.1
강원	73	11.8	95	11.9
충북	58	9.3	90	11.4
충남	68	11.0	105	13.2
전북	39	6.3	64	8.0
전남	43	6.9	49	6.1
경북	55	8.8	57	7.2
경남	71	11.4	71	9.0
제주	11	1.8	14	1.8

<표13> 수도권지역 전출인구

(단위: 천명, %)

	5년전 거주지별 이동자					
	서울		인천		경기	
	'85-'90	'90-'95	'85-'90	'90-'95	'85-'90	'90-'95
총 전출인구	1 377 (100.0)	1 928 (100.0)	174 (100.0)	236 (100.0)	727 (100.0)	754 (100.0)
수도권내에서 이동	1 000 (72.6)	1 472 (76.3)	138 (79.6)	164 (69.4)	542 (74.5)	489 (64.9)
서울	-	-	64 (37.1)	65 (27.5)	440 (60.5)	360 (47.7)
인천	160 (11.6)	177 (9.2)	-	-	102 (14.0)	129 (17.1)
경기	840 (61.0)	1 295 (67.2)	74 (42.5)	99 (41.9)	-	-
시 부	659 (47.9)	1 196 (62.0)	56 (32.1)	85 (36.0)	-	-
군 부	181 (13.1)	99 (5.1)	18 (10.4)	14 (5.9)	-	-
수도권외로 이동	377 (27.4)	456 (23.7)	36 (20.4)	72 (30.6)	185 (25.5)	265 (35.1)

<표14> 경기도(市部)로 이동한 서울·인천지역 전출자 분포(1995)

(단위:천명,%)

	5년전 거주지			
	서울		인천	
	이동자	구성비	이동자	구성비
계	1 196	100.0	85	100.0
수원시	43	3.6	7	8.5
성남시*	250	20.9	6	7.2
의정부시	51	4.2	2	2.5
안양시*	124	10.4	5	5.7
부천시*	133	11.1	29	34.4
광명시	75	6.2	4	4.6
평택시	17	1.4	3	3.3
동두천시	4	0.3	0	0.3
안산시	77	6.4	10	12.2
고양시*	209	17.4	6	7.6
과천시	16	1.3	1	0.7
구리시	27	2.3	1	1.1
남양주시	42	3.5	1	1.3
오산시	3	0.3	0	0.6
시흥시	19	1.6	4	5.1
군포시*	65	5.5	3	3.3
의왕시	15	1.3	1	1.1
하남시	27	2.3	0	0.6

* 신도시 개발지역

<표15> 서울시 구별 전입자

(단위: 명, %)

	서울시 다른 구에서		다른 시도에서	
	전입자	구성비	전입자	구성비
서울시	1 438 140	100.0	1 003 275	100.0
강 북	719 693	50.0	454 950	45.3
종로구	15 155	1.1	15 976	1.6
중구	11 111	0.8	9 084	0.9
용산구	22 031	1.5	21 495	2.1
성동구	34 350	2.4	28 822	2.9
광진구	67 130	4.7	39 609	4.0
동대문구	36 988	2.6	36 522	3.7
중랑구	54 453	3.8	38 865	3.9
성북구	51 968	3.6	39 092	3.9
강북구	65 645	4.6	26 837	2.7
도봉구	76 631	5.3	32 375	3.2
노원구	159 889	11.1	51 001	5.1
은평구	52 503	3.7	45 045	4.5
서대문구	35 516	2.5	34 687	3.5
마포구	36 323	2.5	35 540	3.5
강 남	718 447	50.0	548 325	54.7
양천구	59 449	4.1	46 154	4.6
강서구	126 388	8.8	52 448	5.2
구로구	39 108	2.7	46 696	4.7
금천구	39 943	2.8	37 849	3.8
영등포구	45 873	3.2	49 043	4.9
동작구	62 548	4.4	49 565	4.9
관악구	58 996	4.1	63 259	6.3
서초구	55 094	3.8	39 265	3.9
강남구	97 265	6.8	48 940	4.9
송파구	84 226	5.9	68 284	6.8
강동구	49 557	3.5	46 822	4.7

<표16> 수도권 전입자의 5년전 거주지별 분포

(단위:천명, %)

5년전 거주지	1985~1990		1990~1995	
	이동자	구성비	이동자	구성비
계	1 505	100.0	1 217	100.0
부 산	118	7.8	128	10.5
대 구	67	4.5	66	5.4
광 주	64	4.2	65	5.3
대 전	49	3.2	51	4.2
강 원	196	13.0	156	12.8
충 북	116	7.7	82	6.8
충 남	209	13.9	143	11.8
전 북	195	13.0	141	11.5
전 남	230	15.3	165	13.5
경 북	134	8.9	105	8.6
경 남	110	7.3	100	8.2
제주	17	1.1	16	1.3

<표17> 수도권 전입자의 성, 연령별 분포

(단위: 천명, %)

	총이동자	수도권 전입자		서울 전입자		인천 전입자		경기 전입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100.0	1 217 ¹⁾	100.0	579	100.0	131	100.0	508 ¹⁾	100.0
남자	49.2	588	48.3	278	48.0	65	49.9	245	48.3
여자	50.8	629	51.7	301	52.0	66	50.1	263	51.7
5-9세	9.2	75	6.2	32	5.5	9	7.2	34	6.8
10-14	7.6	69	5.7	33	5.7	9	6.8	45	8.9
15-19	7.8	118	9.7	51	8.9	11	8.5	55	10.9
20-24	11.3	263	21.6	134	23.2	24	18.2	105	20.6
25-29	16.5	268	22.1	133	23.1	27	20.4	108	21.3
30-34	15.9	152	12.5	67	11.6	18	13.6	67	13.3
35-39	11.7	95	7.8	43	7.4	11	8.5	41	8.1
40-44	6.2	51	4.2	25	4.3	6	4.7	20	3.9
45-49	3.8	29	2.4	15	2.7	4	2.8	10	2.0
50-54	2.8	21	1.7	10	1.8	2	1.8	8	1.6
55-59	2.3	20	1.7	9	1.6	2	1.8	9	1.7
60-64	1.8	18	1.5	8	1.4	2	1.8	8	1.5
65-69	1.3	14	1.2	6	1.1	2	1.6	6	1.2
70+	2.0	24	2.0	11	1.9	3	2.3	10	1.9

1) 연령 미상 포함

<표18> 수도권 전입자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

(단위:천명,%)

	수도권 지역 총인구	수도권 전입자		서울 전입자		인천 전입자		경기 전입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¹⁾	100.0	1 073	100.0	514	100.0	113	100.0	446	100.0
취업	53.0	638	59.5	289	56.3	65	57.5	284	63.6
학업	12.8	122	11.4	79	15.3	10	8.6	34	7.5
기타	34.3	313	29.2	146	28.5	38	34.0	129	28.9

1) 미상 제외

<표19> 수도권 전입자의 직업별 분포

(단위:천명,%)

	수도권 지역 총취업자	수도권 전입자		서울 전입자		인천 전입자		경기 전입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100.0	638	100.0	289	100.0	65	100.0	284	100.0
관리직	5.4	13	2.1	7	2.4	1	1.4	6	1.9
전문가	6.7	51	8.0	27	9.3	4	5.7	21	7.3
기술공, 준전문가	14.8	102	16.0	55	19.1	10	14.9	37	13.0
사무직	14.1	111	17.3	62	21.3	9	13.3	40	14.3
서비스, 판매직	21.2	110	17.3	62	21.3	10	16.0	38	13.5
농어업	3.7	4	0.6	0	0.2	0	0.5	3	1.1
기능기계 조작직	26.7	203	31.8	60	20.8	27	41.2	116	40.9
단순 노무직	7.2	37	5.8	15	5.1	4	6.4	18	6.4
기타	0.4	7	1.0	1	0.5	0	0.7	5	1.6

<표20> 수도권 전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천명, %)

	수도권지역 총 취업자	수도권 전입자		서울 전입자		인천 전입자		경기 전입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¹⁾	100.0	638	100.0	289	100.0	65	100.0	284	100.0
임금근로자	70.0	561	88.0	252	87.3	57	87.2	252	88.9
자영자	15.9	42	6.6	20	7.1	5	7.0	17	5.9
사업주	8.8	20	3.2	10	3.4	2	3.5	8	2.9
무급가족 종사자	5.3	14	2.3	6	2.2	1	2.3	7	2.3

1) 미상 제외

<표21> 수도권 전입자의 가구 점유형태별 분포

(단위: 천명, %)

	총이동자	수도권 전입자		서울 전입자		인천 전입자		경기 전입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계	100.0	1 131	100.0	550	100.0	127	100.0	453	100.0
자 가	38.8	250	22.1	96	17.4	45	35.1	109	24.1
전 세	38.3	607	53.7	325	59.1	59	46.2	223	49.2
보증부월세	14.5	201	17.8	105	19.0	17	13.5	79	17.5
무보증월세	1.8	17	1.5	7	1.3	2	1.8	8	1.8
사글세	7.4	6	0.5	2	0.4	1	0.5	3	0.7
무 상	11.1	49	4.4	15	2.8	4	2.9	31	6.8

주) 집단가구원 제외

<표22> 서울 전출자의 성, 연령별 분포

(단위: 천명, %)

	1985~1990			1990~1995		
	총 전출자	수도권내로 전출	수도권외로 전출	총 전출자	수도권내로 전출	수도권외로 전출
계	1 377 (100.0)	984 (100.0)	392 (100.0)	1 928 (100.0)	1 472 (100.0)	456 (100.0)
남 자	683 (49.7)	486 (49.3)	198 (50.4)	963 (49.9)	727 (49.4)	236 (51.8)
여 자	693 (50.4)	499 (50.7)	194 (49.6)	966 (50.1)	746 (50.7)	220 (48.2)
5-9세	148 (10.8)	104 (10.6)	44 (11.3)	185 (9.6)	140 (9.5)	44 (9.8)
10-14	69 (5.0)	46 (4.7)	23 (5.8)	128 (6.6)	99 (6.8)	28 (6.2)
15-19	66 (4.8)	49 (5.0)	17 (4.3)	102 (5.3)	79 (5.4)	23 (5.0)
20-24	132 (9.6)	89 (9.1)	42 (10.8)	161 (8.3)	114 (7.7)	47 (10.3)
25-29	310 (22.5)	216 (22.0)	94 (24.0)	308 (16.0)	219 (14.9)	89 (19.4)
30-34	285 (20.7)	205 (20.9)	79 (20.2)	346 (17.9)	256 (17.4)	89 (19.6)
35-39	123 (9.0)	84 (8.6)	39 (10.0)	241 (12.5)	184 (12.5)	57 (12.6)
40-44	55 (4.0)	38 (3.9)	17 (4.3)	123 (6.4)	97 (6.6)	26 (5.7)
45-49	40 (2.9)	30 (3.1)	10 (2.5)	85 (4.4)	71 (4.8)	14 (3.2)
50-54	40 (2.9)	33 (3.4)	7 (1.8)	70 (3.6)	60 (4.1)	10 (2.2)
55-59	38 (2.7)	32 (3.2)	6 (1.5)	60 (3.1)	52 (3.6)	8 (1.7)
60+	71 (5.2)	57 (5.8)	14 (3.6)	120 (6.3)	100 (6.8)	20 (4.4)

<표23> 서울을 떠난 전출인구(5세 이상)의 성, 연령별 분포: 1995

(단위: %)

	총전출자	현 거주지					수도권외 다른 시도
		수도권내 다른 시도				경기 군부	
		계	인천	경기 시부	경기 군부		
계 (천명)	100.0 (1 928)	100.0 (1 472)	100.0 (178)	100.0 (1 196)	100.0 (99)	100.0 (456)	
남자	49.9	49.4	48.8	49.3	50.8	51.8	
여자	50.1	50.7	51.3	50.7	49.2	48.2	
5-9세	9.6	9.5	9.9	9.5	9.5	9.8	
10-14	6.6	6.8	6.1	7.0	5.1	6.2	
15-19	5.3	5.4	3.8	5.7	4.5	5.0	
20-24	8.3	7.7	7.3	7.7	9.1	10.3	
25-29	16.0	14.9	18.5	14.1	18.4	19.4	
30-34	17.9	17.4	21.3	16.7	18.8	19.6	
35-39	12.5	12.5	12.5	12.5	12.3	12.6	
40-44	6.4	6.6	5.1	6.9	5.1	5.7	
45-49	4.4	4.8	3.3	5.1	3.8	3.2	
50-54	3.6	4.1	3.1	4.3	3.8	2.2	
55-59	3.1	3.6	2.9	3.7	3.0	1.7	
60-64	2.4	2.7	2.5	2.8	2.4	1.4	
65-69	1.6	1.7	1.4	1.8	1.8	1.2	
70+	2.3	2.4	2.3	2.4	2.4	1.8	

<표24> 서울을 떠난 전출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분포: 1995

(단위: %)

	총전출자	현 거주지					수도권외 다른 시도
		수도권내 다른 시도				경기 군부	
		계	인천	경기 시부	경기 군부		
계 (천명)	100.0 (1 615)	100.0 (1 232)	100.0 (149)	100.0 (999)	100.0 (84)	100.0 (383)	
미 혼	23.2	22.6	19.8	22.9	23.7	25.0	
15-19	6.2	6.3	4.4	6.7	5.2	5.8	
20-24	7.9	7.5	6.2	7.7	8.3	9.2	
25-29	5.9	5.8	5.9	5.7	6.8	6.3	
30-34	2.0	1.9	2.2	1.8	1.9	2.3	
35+	1.1	1.1	1.2	1.0	1.5	1.4	
유배우	71.3	71.6	74.0	71.3	70.6	70.1	
15-29	15.2	13.7	18.6	12.7	17.2	19.9	
30-34	19.2	18.8	22.9	18.1	19.9	20.8	
35-39	13.9	13.9	13.7	14.0	13.3	13.7	
40-44	7.0	7.3	5.5	7.7	5.3	6.1	
45+	16.0	18.0	13.3	18.9	15.0	9.6	
사 별	4.5	4.8	5.1	4.8	4.4	3.7	
이 혼	1.0	1.0	1.2	1.0	1.2	1.2	

<표25> 이동유형별 인구분포(5세 이상): 1995

(단위: 천명, %)

이동유형	인구			구성비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계	39,742	31,061	8,681	100.0	100.0	100.0
비이동자	14,067	8,437	5,630	35.4	27.2	64.9
이동자	25,670	22,622	3,047	64.6	72.8	35.1
1회이동(최근)	3,021	2,598	423	7.6	8.4	4.9
1회이동(정착)	15,688	13,825	1,863	39.5	44.5	21.5
반복이동	6,285	5,671	613	15.8	18.3	7.1
귀환이동	676	528	528	1.7	1.7	1.7

<표26> 인구의 특성별 이동유형 분포

(단위: %)

	비이동자	이동자	이동유형			
			1회이동(최근)	1회이동(정착)	반복이동	귀환이동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51.6	47.6	49.6	46.6	48.7	51.6
여자	48.4	52.4	50.4	53.4	51.3	48.4
5-9세	12.4	5.2	17.7	2.6	4.6	14.9
10-19	27.7	14.0	23.7	13.1	10.9	21.2
20-29	17.8	20.7	36.0	16.0	24.9	20.8
30-39	12.0	25.7	13.4	24.4	34.9	27.5
40-49	9.4	16.1	4.2	20.0	13.0	8.4
50-59	8.9	9.8	2.2	12.9	6.1	3.5
60+	11.8	8.5	2.8	11.0	5.5	3.7
미혼	40.0	25.1	52.0	22.3	21.6	28.1
유배우	50.5	67.0	43.7	68.5	72.1	65.7
사별	8.6	6.8	3.5	8.0	5.0	4.4
이혼	0.9	1.2	0.8	1.2	1.4	1.8
졸업·중퇴						
초등학교	13.3	10.6	3.4	13.8	6.4	5.1
중학교	7.9	12.0	4.5	14.7	9.5	7.5
고등학교	21.3	34.3	31.1	33.5	38.2	31.0
초대·전문대	2.4	3.6	4.3	3.0	4.7	3.8
대학	5.4	12.8	10.1	10.8	19.0	12.1
대학원	0.4	1.4	0.7	1.2	2.1	1.1
재학						
초등학교	15.0	6.7	15.3	4.7	6.5	17.1
중학교	9.5	4.3	5.7	4.2	3.5	7.2
고등학교	8.3	4.2	6.4	4.3	2.7	4.6
초대·전문대	0.9	0.7	1.6	0.6	0.5	0.6
대학	3.4	3.3	6.9	2.8	2.9	2.6
대학원	0.1	0.3	0.3	0.2	0.4	0.2
안받았음	12.1	5.9	9.7	6.1	3.6	7.0

2. 통근·통학

<표1> 통근통학 인구규모 및 통근통학율

(단위: 천명, %)

	1990			1995			증 감	
	12세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 율	12세이상 인구	통근통학 인구	통근통학 율	통근통학 인구	증감율 (%)
전국	33 889	17 031	50.3	35 995	23 044	64.0	6 013	35.3
남자	16 504	10 998	66.4	17 514	14 341	81.9	3 343	30.4
여자	17 385	6 033	34.7	18 482	8 703	47.1	2 670	44.3

<표2> 성·연령별 통근통학인구 및 통근통학율

(단위: 천명, %)

연령	통근학인구		통근인구		통학인구	
	통근통학인구	통근통학율	통근인구	통근율	통학인구	통학율
계	23 044	64.0	16 240	45.1	6 804	18.9
12-19	5 844	94.4	279	4.5	5 565	89.9
20-29	5 226	66.8	4 052	51.8	1 174	15.0
30-39	5 054	60.6	5 014	60.1	40	0.5
40-49	3 446	62.4	3 430	62.1	15	0.3
50-59	2 238	56.3	2 230	56.1	7	0.2
60이상	1 237	29.9	1 235	29.9	2	0.1
남 자	14 341	81.9	10 746	61.4	3 595	20.5
12-19	2 960	93.9	109	3.5	2 850	90.4
20-29	2 994	80.9	2 294	62.0	700	18.9
30-39	3 765	88.9	3 737	88.3	28	0.7
40-49	2 410	85.1	2 400	84.7	10	0.4
50-59	1 478	75.8	1 473	75.5	5	0.3
60이상	735	44.6	733	44.5	2	0.1
여 자	8 703	47.1	5 494	29.7	3 209	17.4
12-19	2 884	94.9	169	5.6	2 714	89.3
20-29	2 232	54.1	1 758	42.6	474	11.5
30-39	1 290	31.4	1 277	31.1	12	0.3
40-49	1 036	38.5	1 031	38.3	5	0.2
50-59	760	37.5	758	37.4	2	0.1
60이상	502	20.2	501	20.2	-	-

<표3> 가구당 평균 통근통학 인구

(단위: 명)

	1990	1995	증 감
통근통학	1.5	1.8	0.3
통근	0.9	1.3	0.4
통학	0.6	0.5	△0.1

<표4> 시도별 주간인구

(단위: 천명, 상주인구100명당 주간인구)

	상주(야간) 인구	유출입 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 지수
		유입인구	유출인구	유입-유출		
전국	35 995	2 162	2 162	-	35 995	100
서울	8 421	971	519	452	8 873	105
부산	3 130	53	106	△53	3 077	98
대구	1 984	37	114	△77	1 907	96
인천	1 805	116	200	△85	1 721	95
광주	1 001	30	49	△19	981	98
대전	1 014	29	47	△18	996	98
경기	5 959	498	934	△436	5 523	93
강원	1 200	20	6	14	1 214	101
충북	1 133	33	22	11	1 144	101
충남	1 453	74	27	47	1 500	103
전북	1 553	12	8	5	1 558	100
전남	1 691	50	29	21	1 713	101
경북	2 193	126	38	88	2 281	104
경남	3 052	112	62	50	3 103	102
제주	405	-	-	-	405	100

<표5> 대도시 구(군)별 주간인구

(단위: 천명, 상주인구100명당 주간인구, 명/Km²)

순위	구시군명	야간인구 (상주인구)	주간인구	유입초과	주간인구 지수	야간인구 밀도	주간인구 밀도
서울시							
1	중 구	115	453	338	395	11 499	45 404
2	종 로 구	162	395	233	244	6 774	16 513
3	강 남 구	453	726	273	160	11 466	18 359
4	영등포구	342	514	173	150	13 914	20 938
부산시							
1	중 구	55	136	81	249	19 598	48 792
2	동 구	129	145	16	113	13 204	14 855
3	강 서 구	55	59	5	108	323	350
4	남 구	260	276	17	106	10 591	11 272
대구시							
1	중 구	97	162	65	167	13 644	22 853
2	북 구	295	327	32	111	3 093	3 424
3	달 성 군	92	96	5	105	215	226
4	달 서 구	377	360	△16	96	6 052	5 789
인천시							
1	중 구	57	108	51	191	644	1 230
2	옹 진 군	11	12	8	107	66	70
3	강 화 군	55	56	1	101	134	135
4	남 구	347	347	△1	100	14 355	14 332
광주시							
1	동 구	124	174	50	140	2 542	3 569
2	광 산 구	127	136	8	107	571	608
3	서 구	180	174	△6	97	3 838	3 711
4	북 구	363	342	△21	94	2 975	2 806
대전시							
1	유 성 구	97	130	33	134	547	735
2	중 구	220	239	19	109	3 538	3 851
3	대 덕 구	157	161	4	103	2 299	2 358
4	동 구	224	220	△4	98	1 639	1 609

<표6> 서울시 구별 주간인구

(단위: 천명, 상주인구100명당 주간인구, 명/Km²)

순위	구시군명	야간인구 (상주인구)	주간인구	유입초과	주간인구 지수	야간인구 밀도	주간인구 밀도
1	중 구	115	453	338	395	11 499	45 404
2	동대문구	348	438	89	126	24 524	30 820
3	영등포구	342	514	173	150	13 914	20 938
4	서대문구	299	334	35	112	16 995	18 991
5	성 동 구	275	317	41	115	16 344	18 816
6	강 남 구	453	726	273	160	11 466	18 359
7	동 작 구	351	284	△67	81	21 444	17 368
8	종 로 구	162	395	233	244	6 774	16 513
9	양 천 구	374	285	△89	76	21 487	16 399
10	구 로 구	297	330	33	111	14 760	16 379
11	성 북 구	411	393	△17	96	16 737	16 029
12	중 랑 구	355	276	△78	78	19 152	14 925
13	광 진 구	312	249	△63	80	18 308	14 610
14	금 천 구	231	185	△46	80	17 655	14 155
15	마 포 구	324	331	7	102	13 566	13 880
16	송 파 구	519	467	△52	90	15 310	13 777
17	강 동 구	395	332	△62	84	16 053	13 517
18	용 산 구	214	288	74	135	9 775	13 152
19	관 약 구	457	371	△86	81	15 448	12 538
20	도 봉 구	283	234	△49	83	13 572	11 204
21	은 평 구	398	313	△86	79	13 401	10 521
22	노 원 구	453	364	△89	80	12 760	10 248
23	강 북 구	324	223	△102	69	13 738	9 426
24	강 서 구	403	362	△41	90	9 723	8 744
25	서 초 구	327	410	82	125	6 934	8 681

<표7> 주간인구지수 상위 및 하위 시군구

(단위: 상주인구100명당 주간인구)

순위	주간인구지수 상위 시군구			주간인구지수 하위 시군구		
	시군구	주간인구 지수	최다 유입지	시군구	주간인구 지수	최다 유출지
1	서울 중 구	395	서울 노원구	인천 연수구	64	인천 남 구
2	부산 중 구	249	부산 사하구	서울 강북구	69	서울 성북구
3	서울 종로구	244	서울 성북구	경기 광명시	71	서울 구로구
4	인천 중 구	190	인천 남 구	부산 수영구	72	부산 남 구
5	대구 중 구	168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74	인천 부평구
6	서울 강남구	161	서울 송파구	경기 의왕시	75	경기 안양시
7	서울 영등포구	151	서울 양천구	광주 남 구	75	광주 동 구
8	광주 동 구	140	광주 북 구	경기 고양시	76	서울 은평구
9	경북 경 산 시	136	대구 수성구	경기 하남시	76	서울 강동구
10	서울 용 산 구	135	서울 동작구	서울 양천구	76	서울 강서구
11	대전 유 성 구	134	대전 서 구	경기 군포시	76	경기 안양시
12	서울 동대문구	126	서울 중랑구	대전 서 구	78	대전 중 구
13	서울 서 초 구	125	경기 성남시	서울 중랑구	78	서울 동대문구
14	경기 김 포 군	125	경기 부천시	서울 은평구	79	서울 중 구
15	경기 광 주 군	121	경기 성남시	서울 광진구	80	서울 강남구

< 표 8 > 수도권 현거주지 및 통근학지별 통근통학 인구

현거주지	통 근 학 지														
	계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계	10,322,297	5,880,417	330,831	406,945	208,612	215,757	141,845	309,482	146,240	239,342	106,186	130,877	201,319	162,264	224,515
서울	5,440,851	4,922,136	268,957	328,808	169,456	185,021	133,019	268,408	130,489	219,112	101,877	116,261	186,160	137,453	191,796
종로구	98,719	92,408	56,317	7,750	1,743	1,741	332	3,008	392	2,763	186	678	748	1,042	3,046
중구	69,827	66,126	2,688	41,859	1,734	2,573	461	1,636	262	1,004	177	428	443	509	1,228
용산구	135,392	124,789	5,129	12,703	65,535	2,162	311	3,223	344	1,755	283	680	952	530	2,681
성동구	174,699	162,616	6,453	18,613	3,777	75,695	7,016	8,189	1,536	2,877	343	995	1,532	783	2,426
광진구	205,123	189,247	7,184	10,681	2,495	12,528	93,173	9,372	3,441	2,704	305	929	1,608	482	2,323
동대문구	220,945	204,953	13,014	13,053	3,863	7,907	2,886	110,515	5,584	9,166	685	2,392	4,641	850	2,702
중랑구	224,687	203,476	8,658	10,577	3,024	6,865	5,363	25,729	96,840	4,846	565	2,251	10,463	638	2,239
성북구	257,327	240,339	19,126	17,035	4,553	5,694	1,054	14,846	2,230	116,659	5,698	5,590	9,496	1,177	4,261
강북구	208,003	193,046	15,606	13,452	4,106	4,232	753	9,818	1,914	17,329	76,477	10,898	8,864	874	3,357
도봉구	180,549	163,145	9,484	12,292	2,774	2,734	816	8,435	1,873	9,636	9,983	68,348	12,595	696	2,298
노원구	290,788	268,596	14,722	19,457	5,183	7,140	2,003	18,040	7,238	14,422	3,572	12,090	121,635	911	3,218
은평구	247,998	224,309	16,876	17,904	5,383	3,312	586	5,066	728	3,886	186	973	1,081	110,066	17,844
서대문구	189,917	174,685	13,736	14,224	4,528	2,410	520	4,103	482	2,783	153	1,024	687	8,249	84,287
마포구	208,934	190,835	8,420	13,532	5,818	2,627	699	4,047	611	2,488	209	903	907	2,613	13,162
양천구	244,887	216,813	6,135	8,964	3,572	1,953	405	2,322	400	1,901	237	450	656	977	5,334
강서구	257,590	229,618	6,295	9,053	4,227	2,389	554	3,215	463	1,850	307	680	618	1,476	5,563
구로구	195,783	165,582	4,236	6,755	3,700	1,671	324	2,161	209	1,137	152	382	548	589	2,451
금천구	151,427	125,879	2,585	3,540	2,803	1,205	210	1,203	268	834	173	315	393	411	1,428
영등포구	225,510	200,322	6,067	8,740	5,373	2,443	395	2,728	350	1,832	145	688	569	585	4,270
동작구	230,629	205,521	7,260	12,595	10,560	3,102	750	3,548	529	2,266	383	967	914	809	3,338
관악구	294,771	285,216	6,777	11,614	7,083	3,711	690	3,791	551	2,561	253	797	998	1,059	4,153
서초구	217,669	193,087	7,480	10,568	5,038	3,818	915	3,814	584	3,465	336	893	782	576	6,384
강남구	305,003	275,415	9,858	13,003	6,113	7,516	1,972	5,544	1,122	4,672	538	1,064	1,846	670	6,831
송파구	345,883	311,593	8,565	12,515	4,304	9,725	5,566	7,561	1,152	4,004	296	1,032	1,803	547	4,561
강동구	258,791	234,520	6,286	8,328	2,367	9,878	5,265	6,494	1,386	2,272	235	814	1,381	334	2,413
인천	1,138,707	119,792	9,020	10,102	7,376	3,087	781	4,012	795	2,862	411	929	1,084	1,326	4,625
경기	3,742,739	838,489	52,854	68,035	31,780	27,649	8,045	37,062	14,956	17,368	3,898	13,687	14,075	23,485	28,092

현거주지	통 근 학 지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경기	기타
계	216,111	156,225	216,836	228,031	105,613	396,914	163,674	208,190	299,139	575,814	293,475	196,180	1,053,455	3,294,136	94,289
서울	181,713	139,221	181,348	163,776	84,475	300,845	142,033	183,917	232,105	455,253	248,791	171,840	58,523	410,527	49,665
종로구	1,365	204	461	806	71	2,051	624	629	1,582	3,865	668	336	769	4,889	653
중구	1,267	105	271	395	61	1,459	404	427	1,703	3,850	774	408	409	3,003	289
용산구	3,677	332	949	1,517	116	4,535	1,558	1,136	3,841	8,743	1,713	384	1,404	8,056	1,143
성동구	1,908	192	686	1,142	89	3,405	913	843	4,418	12,787	3,683	2,315	1,409	9,700	974
광진구	1,890	246	838	976	116	3,650	800	1,210	4,631	14,979	7,822	4,864	1,024	12,579	2,273
동대문구	2,169	325	697	1,109	163	3,874	1,118	1,018	3,192	9,713	2,533	1,784	1,668	12,828	1,496
중랑구	1,593	131	522	873	90	3,103	896	567	2,939	9,332	3,102	2,271	1,171	18,186	1,854
성북구	3,057	295	1,203	1,608	93	4,549	1,577	1,147	4,337	11,607	2,072	1,384	1,734	13,677	1,577
강북구	2,412	288	775	1,072	109	3,617	1,222	1,242	3,200	9,017	1,628	784	1,268	12,056	1,633
도봉구	1,669	233	615	902	102	3,317	896	762	2,394	8,139	1,394	758	878	15,206	1,320
노원구	2,963	341	1,009	1,255	81	5,965	1,390	1,189	5,066	15,167	2,851	1,688	1,434	18,997	1,761
은평구	7,571	765	1,761	1,873	104	6,917	1,579	1,684	4,481	11,330	1,652	701	2,168	19,463	2,058
서대문구	9,703	799	2,125	1,969	158	6,584	1,225	1,257	3,425	8,389	1,305	560	1,749	12,449	1,034
마포구	97,609	1,384	4,230	3,281	336	10,222	1,448	1,866	3,729	8,822	1,370	502	2,525	13,714	1,860
양천구	5,877	103,194	22,727	8,926	1,182	22,361	3,121	2,771	3,673	7,855	1,239	581	6,247	19,605	2,222
강서구	7,105	15,430	122,244	6,843	1,108	20,252	2,830	2,542	3,602	8,651	1,543	778	4,835	21,021	2,116
구로구	3,503	5,711	3,808	88,731	5,017	17,038	2,650	3,363	3,315	6,898	931	302	6,721	22,108	1,372
금천구	2,039	1,164	2,305	8,296	66,184	11,381	2,889	6,334	3,540	5,395	914	270	2,195	21,929	1,424
영등포구	5,618	3,108	4,846	9,861	2,769	113,374	6,156	4,139	5,239	8,829	1,569	629	4,294	18,796	2,098
동작구	3,989	1,335	2,472	6,085	1,442	14,939	83,076	10,264	15,133	16,016	2,933	814	3,428	19,042	2,638
관악구	4,012	1,796	3,117	10,144	4,036	16,004	14,107	125,746	15,646	21,693	3,623	1,254	4,001	22,886	2,668
서초구	2,729	574	1,040	1,727	384	6,350	5,100	5,089	98,003	23,002	3,014	1,422	2,296	18,393	3,893
강남구	3,541	421	1,024	1,853	329	6,786	3,410	4,679	18,776	162,127	8,614	3,106	2,096	22,651	4,841
송파구	2,933	565	972	1,693	234	5,762	2,124	2,833	11,366	39,962	168,292	13,226	1,674	28,736	3,880
강동구	1,514	283	651	839	101	3,350	919	1,180	4,874	19,085	23,552	130,719	1,126	20,557	2,588
인천	5,381	3,024	6,235	11,919	862	18,694	2,950	3,207	6,365	11,818	1,954	973	938,357	74,813	5,745
경기	29,017	13,980	29,253	52,336	20,276	77,375	18,691	21,066	60,669	108,743	42,730	23,367	56,575	2,808,796	38,879

<표9> 서울시 강북·강남간 통근통학

(단위: 천명)

현거주지	통근학지		
	계	강북	강남
계	4 922	2 619	2 304
강북	2 499	2 126	372
강남	2 424	492	1 932

<표10-1> 5대 광역시 통근통학 유출 및 유입현황

(단위: 천명)

	통근통학인구		통근인구		통학인구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부 산	106	53	96	39	10	15
대 구	114	37	70	24	43	13
인 천	200	116	172	70	28	26
광 주	49	30	41	16	8	14
대 전	47	29	42	15	6	14

<표10-2> 5대 광역시 통근통학인구 유출지

유출지 순위	시외곽 지역으로의 유출인구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전
1	양산군 (37)	경산시 (62)	부천시 (30)	나주시 (11)	논산군 (8)
2	김해시 (29)	구미시 (12)	영등포구(19)	담양군 (6)	금산군 (5)
3	울산시 (16)	칠곡군 (10)	김포군 (12)	화순군 (5)	공주시 (5)
4	창원시 (5)	영천시 (5)	구로구 (12)	장성군 (4)	연기군 (3)
5	마산시 (4)	고령군 (4)	강남구 (12)	곡성군 (3)	천안시 (2)

* ()안의 수치는 유출인구(천명)임.

<표11> 6개 대도시 통근통학 이동거리

(단위: 천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0년							
통근 통학	9 446 (100.0)	5 036 (100.0)	1 705 (100.0)	973 (100.0)	794 (100.0)	488 (100.0)	451 (100.0)
1. 시내에서	8 728 (92.4)	4 680 (92.9)	1 639 (96.1)	880 (90.4)	645 (81.2)	459 (94.2)	425 (94.3)
가 거주지 구군내	4 308 (45.6)	2 174 (43.2)	857 (50.2)	417 (42.9)	381 (48.0)	242 (49.6)	238 (52.8)
1) 거주지 동읍면내	2 306 (24.4)	1 318 (26.2)	387 (22.7)	187 (19.2)	196 (24.6)	94 (19.3)	125 (27.8)
2) 구내 다른 동읍면	2 001 (21.2)	856 (17.0)	470 (27.6)	230 (23.6)	186 (23.4)	148 (30.3)	113 (25.1)
나 시내 다른 구·군	4 419 (46.8)	2 506 (49.8)	782 (45.9)	463 (47.6)	264 (33.2)	217 (44.6)	187 (41.5)
2. 시외로	718 (7.6)	356 (7.1)	66 (3.9)	93 (9.6)	149 (18.8)	28 (5.8)	25 (5.7)
1995년							
통근 통학	10 973 (100.0)	5 441 (100.0)	1 926 (100.0)	1 209 (100.0)	1 139 (100.0)	630 (100.0)	628 (100.0)
1. 시내에서	9 937 (90.6)	4 922 (90.5)	1 820 (94.5)	1 095 (90.6)	938 (82.4)	580 (92.2)	581 (92.5)
가 거주지 구군내	5 424 (49.4)	2 477 (45.5)	993 (51.6)	655 (54.2)	587 (51.5)	354 (56.1)	359 (57.2)
1) 거주지 동읍면내	2 025 (18.5)	1 022 (18.8)	377 (19.6)	195 (16.1)	209 (18.4)	100 (15.9)	122 (19.3)
2) 구내 다른 동읍면	3 399 (31.0)	1 454 (26.7)	616 (32.0)	461 (38.1)	377 (33.1)	253 (40.3)	238 (37.8)
나 시내 다른 구·군	4 513 (41.1)	2 445 (45.0)	827 (42.9)	440 (36.4)	352 (30.9)	227 (36.0)	222 (35.3)
2. 시외로	1 036 (9.4)	519 (9.5)	106 (5.5)	114 (9.4)	200 (17.6)	49 (7.8)	47 (7.5)

<표12> 통근통학지와 거주지간 불일치율

(단위: 천명, %)

	1990		1995		증 감	
	통근통학 인 구	구성비	통근통학 인 구	구성비	통근통학 인 구	구성비
계	9 446	100.0	10 973	100.0	1 526	-
일 치	2 307	24.4	2 025	18.5	△282	△6.0
불일치	7 139	75.6	8 948	81.5	1 808	6.0
서울	5 036	100.0	5 441	100.0	405	-
일 치	1 318	26.2	1 022	18.8	△296	△7.4
불일치	3 718	73.8	4 418	81.2	700	7.4
부산	1 705	100.0	1 926	100.0	221	-
일 치	387	22.7	377	19.6	△10	△3.1
불일치	1 318	77.3	1 549	80.4	231	3.1
대구	973	100.0	1 209	100.0	236	-
일 치	187	19.2	195	16.1	7	△3.1
불일치	786	80.8	1 014	83.9	228	3.1
인천	794	100.0	1 139	100.0	344	-
일 치	196	24.6	209	18.4	14	△6.3
불일치	598	75.4	929	81.6	331	6.3
광주	488	100.0	630	100.0	142	-
일 치	94	19.3	100	15.9	6	△3.4
불일치	394	80.7	530	84.1	136	3.4
대전	451	100.0	628	100.0	178	-
일 치	125	27.8	122	19.3	△4	△8.4
불일치	326	72.3	507	80.7	181	8.4

* 일 치 : 통근통학지가 거주지 동읍면내일 경우
 불일치 : 통근통학지가 거주지 동읍면 경계를 벗어날 경우

<표13> 지역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천명, %)

	통근통학 인구			이용교통수단별 구성비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계	23 044	17 689	5 356	100.0	100.0	100.0
- 단일수단	22 084	16 767	5 317	95.8	94.8	99.3
버 스	7 992	6 774	1 218	34.7	38.3	22.7
도 보	6 490	3 845	2 645	28.2	21.7	49.4
승용차	4 682	4 045	637	20.3	22.9	11.9
기 타	1 262	660	602	5.5	3.7	11.3
전철.지하철	1 026	1 025	2	4.5	5.8	0.0
자전거	408	222	186	1.8	1.3	3.5
택 시	172	159	14	0.8	0.9	0.3
기 차	51	38	13	0.2	0.2	0.2
- 복합수단	960	921	39	4.2	5.2	0.7

<표14> 대도시의 통근통학 이용교통수단

(단위: 천명,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10 973	5 441	1 926	1 209	1 139	630	62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93.6	90.0	96.6	98.6	93.8	99.4	99.2
버스	38.0	30.8	47.3	45.7	39.1	50.9	42.6
도보	22.3	23.5	23.1	19.4	19.4	19.8	22.2
승용차	20.6	19.2	16.6	25.8	24.3	22.7	26.8
전철지하철	7.7	13.0	4.0	0.0	5.0	0.0	0.0
기타	3.2	2.1	3.7	5.1	4.3	3.5	4.5
자전거	0.8	0.6	0.6	1.6	1.0	1.4	1.4
택시	0.8	0.7	1.0	0.8	0.7	1.1	1.3
기차	0.2	0.2	0.2	0.2	0.1	0.1	0.4
복합수단	6.4	10.0	3.4	1.4	6.2	0.6	0.8
시내버스+ 전철지하철	4.0	6.7	1.9	-	3.5	-	-
기타버스+ 전철지하철	0.8	1.2	0.2	-	1.3	-	-
시내버스+ 좌석버스	0.4	0.4	0.3	0.7	0.2	0.2	0.2
기타	0.4	0.5	0.4	0.4	0.5	0.2	0.3
시내버스+ 기타버스	0.3	0.3	0.4	0.2	0.3	0.1	0.2
승용차+ 전철지하철	0.3	0.4	0.1	-	0.2	-	-
좌석버스+ 전철지하철	0.2	0.4	0.0	-	0.1	-	-
택시+ 전철지하철	0.1	0.1	-	-	-	-	-
시내버스+ 기차	0.1	0.1	0.1	0.1	-	-	0.1
자전거+ 전철지하철	-	-	-	-	-	-	-

<표15> 이동거리별 이용교통수단(6개 대도시)

(단위: 천명, %)

	계	1.시내에서	가.거주지 '구군'내		나. 시내 다른구군	2시외로	
			1)거주지 동읍면내	2)구내다 른동읍면			
계	10 973 100.0	9 937 100.0	5 424 100.0	2 025 100.0	3 399 100.0	4 513 100.0	1 036 100.0
단일수단	93.6	94.7	98.8	99.8	98.2	89.8	81.9
시내버스	32.4	34.4	30.0	10.3	41.8	39.7	14.6
좌석버스	1.5	1.4	0.6	0.2	0.8	2.3	6.1
기타버스	4.1	3.3	3.1	1.7	4.0	3.5	4.9
전철·지하철	7.7	7.2	2.2	0.4	3.2	13.3	16.2
기차	0.2	0.0	0.0	0.0	0.0	0.0	1.3
승용차	20.6	19.1	13.9	7.5	17.7	25.3	35.4
택시	0.8	0.9	0.9	0.6	1.1	0.8	0.2
자전거	0.8	0.9	1.3	1.4	1.3	0.4	0.1
도보	22.3	24.6	43.5	75.1	24.7	1.9	0.2
기타	3.2	3.0	3.3	2.7	3.6	2.7	3.0
복합수단	6.4	5.3	1.2	0.2	1.8	10.2	18.2

<표16> 통근인구의 연령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천명, %)

계	계	12-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16 240 100.0	279 100.0	4 052 100.0	5 014 100.0	3 430 100.0	2 230 100.0	1 235 100.0
단일수단	95.9	93.9	93.4	96.3	96.8	97.1	98.4
버스	26.7	56.0	41.2	21.5	22.9	22.6	11.1
전철·지하철	4.7	7.1	8.2	4.3	3.3	3.0	1.5
기차	0.2	0.2	0.2	0.2	0.2	0.2	0.1
승용차	27.8	3.9	21.4	40.5	33.4	18.1	5.4
택시	1.0	1.0	1.0	1.3	1.2	0.6	0.2
자전거	1.8	1.0	1.0	1.3	1.8	3.1	3.8
도보	26.2	21.2	15.4	19.3	25.4	40.3	67.8
기타	7.5	3.6	5.0	7.9	8.7	9.2	8.4
복합수단	4.1	6.1	6.6	3.7	3.2	2.9	1.6

<표17> 통근인구의 직업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

	직업 (대분류)								
	1	2	3	4	5	6	7	8	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96.8	93.9	93.2	92.5	96.4	99.9	95.4	95.7	95.7
시내버스	6.2	15.0	20.1	27.8	23.3	1.4	24.6	37.0	37.0
좌석버스	1.2	2.4	2.4	2.8	1.6	0.1	1.3	1.5	1.5
기타버스	1.9	3.9	4.9	6.3	2.4	0.3	9.9	6.9	6.9
전철·지하철	3.7	6.9	8.4	9.5	4.7	0.0	4.4	4.3	4.3
기차	0.3	0.3	0.2	0.3	0.1	0.0	0.3	0.3	0.3
승용차	71.3	51.0	43.7	32.3	26.3	2.1	26.2	11.7	11.7
택시	0.6	0.9	0.6	0.6	1.7	0.0	0.3	0.4	0.4
자전거	0.3	0.4	0.6	0.7	0.9	3.6	2.2	3.9	3.9
도보	8.2	12.4	10.1	10.0	29.0	75.3	17.7	21.3	21.3
기타	3.3	0.7	2.2	2.3	6.3	17.0	8.4	8.4	8.4
복합수단	3.2	6.1	6.8	7.5	3.6	0.1	4.7	4.3	4.3

주) 1 : 관리직

3 : 기술공 및 준전문가

5 :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9 : 단순 노무직 근로자

2 : 전문가

4 : 사무직원

6 :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8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표18> 통학인구의 학교급별 이용교통수단

(단위: 천명, %)

이용수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전문	대학교	대학원이상
계	480	2 419	2 164	263	1 141	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99.9	99.6	97.4	89.0	85.8	83.6
시내버스	11.8	42.3	60.8	51.9	41.8	28.6
좌석버스	0.2	0.4	1.8	4.8	4.7	4.0
기타버스	2.4	3.6	7.4	8.8	7.1	4.3
전철·지하철	0.1	0.6	2.5	7.7	11.7	15.7
기 차	0.0	0.0	0.1	0.9	1.1	1.2
승 용 차	1.1	1.6	1.8	2.2	3.3	17.6
택 시	0.0	0.0	0.0	0.1	0.1	0.2
자 전 거	1.4	2.9	1.6	0.3	0.8	0.8
도 보	82.4	47.7	20.4	11.9	14.6	10.7
기 타	0.5	0.5	0.9	0.4	0.6	0.6
복합수단	0.1	0.5	2.6	11.0	14.2	16.4

<표19> 지역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단위: 천명, %)

	소요시간							
	계	15분 미만	15-30	30-45	45-60	60-90	90-120	120분 이상
전국	23 044	7 701	6 919	3 837	2 474	1 477	372	264
동부	17 689	5 090	5 147	3 266	2 234	1 367	345	240
읍·면부	5 356	2 611	1 771	572	241	110	27	24
서울시	5 441	1 365	1 291	1 071	914	571	139	90
5개 광역시	5 532	1 493	1 690	1 116	692	380	92	70
9개도	12 072	4 843	3 937	1 651	868	526	141	105
[구성비]								
전국	100.0	33.4	30.0	16.7	10.7	6.4	1.6	1.1
동부	100.0	28.8	29.1	18.5	12.6	7.7	2.0	1.4
읍·면부	100.0	48.8	33.1	10.7	4.5	2.1	0.5	0.4
서울시	100.0	25.1	23.7	19.7	16.8	10.5	2.5	1.7
5개 광역시	100.0	27.0	30.5	20.2	12.5	6.9	1.7	1.3
9개도	100.0	40.1	32.6	13.7	7.2	4.4	1.2	0.9

<표20> 지역별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

(단위: 분)

지 역	소요시간	지 역	소요시간
전 국	32	경 기	35
동 부	34	강 원	22
읍면부	24	충 북	25
서 울	38	충 남	23
부 산	34	전 북	25
대 구	34	전 남	24
인 천	37	경 북	24
광 주	30	경 남	26
대 전	29	제 주	25

<표21> 이용교통수단별 평균 통근소요시간

(단위: 분)

교통수단	소요시간	교통수단	소요시간
계	32	승용차	35
단일수단	30	택 시	21
시내버스	35	자전거	20
좌석버스	51	도 보	18
기타버스	38	기 타	29
전철·지하철	51		
기 차	78	복합수단	66

<표22> 학교급별 평균 통학소요시간

(단위: 분)

학교	소요시간	학교	소요시간
계	31	초급·전문대	46
초등학교	17	대 학	49
중 학 교	21	대학원이상	50
고등학교	30	기 타	39

<표23> 통근통학인구의 성별 구성비

	1990			1995			증감(%p)	
	계(천명)	남(%)	여(%)	계(천명)	남(%)	여(%)	남	여
통근통학	17 031	64.6	35.4	23 044	62.2	37.8	△2.4	2.4
통근	10 664	71.5	28.5	16 240	66.2	33.8	△5.3	5.3
통학	6 367	53.0	47.0	6 804	52.8	47.2	△0.2	0.2

<표24> 성별 통근통학 이동거리(6개 대도시)

(단위: 천명, %, %p)

	인 구			구 성 비			
	계	남	여	계	남	여	남녀 차이
계	10 973	6 939	4 034	100.0	100.0	100.0	-
1. 시내에서	9 937	6 145	3 792	90.6	88.6	94.0	△5.4
가. 거주지 구·군내	5 424	3 218	2 206	49.4	46.4	54.7	△8.3
1) 거주지 동읍면내	2 025	1 152	873	18.5	16.6	21.7	△5.1
2) 구내 다른 동읍면	3 399	2 066	1 333	31.0	29.8	33.1	△3.3
나. 시내다른 구·군	4 513	2 928	1 585	41.1	42.2	39.3	2.9
2. 시외로	1 036	794	242	9.4	11.4	6.0	5.4

<표25> 성별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 및 소요시간대별 분포

(단위: 분, 천명, %)

	평균 소요시간		
	남 자	여 자	차 이
통근통학	33	29	4
통 근	34	29	5
통 학	31	30	1

	계	30분미만	30분-1시간	1시간이상
남 자	14 341	60.7	28.8	10.5
통 근	10 746	59.0	29.9	11.1
통 학	3 595	65.7	25.5	8.8
여 자	8 703	68.0	25.1	6.9
통 근	5 494	68.7	24.8	6.5
통 학	3 209	66.7	25.6	7.7

<표26> 성별 통근 및 통학인구의 이용교통수단

(단위: 천명, %)

	통 근		통 학	
	남	여	남	여
계	10 746	5 494	3 595	3 209
	100.0	100.0	100.0	100.0
단일수단	96.0	95.7	95.6	95.8
버 스	22.5	34.9	51.9	56.0
전철·지하철	4.5	5.1	4.0	3.7
기 차	0.2	0.1	0.3	0.2
승용차	36.7	10.5	2.8	1.8
택 시	1.1	1.0	0.1	0.1
자전거	2.3	0.7	2.9	0.6
도 보	19.8	38.7	32.8	32.8
기 타	8.9	4.7	0.7	0.6
복합수단	4.0	4.3	4.4	4.2

3. 부록: 행정구역별 통근통학 인구(1995)

< 서울특별시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8 421 082	5 440 851	3 435 554	2 005 297	3 729 163	1 711 688	971 003	518 715	8 873 370
종로구	161 996	98 719	61 462	37 257	68 407	30 312	275 326	42 402	394 920
중구	114 659	69 827	42 371	27 456	51 020	18 807	366 059	27 968	452 750
용산구	213 760	135 392	82 556	52 836	97 049	38 343	143 712	69 857	287 615
성동구	275 280	174 699	110 646	64 053	127 332	47 367	140 640	99 004	316 916
광진구	312 114	205 123	131 175	73 948	143 948	61 175	48 908	111 950	249 072
동대문구	348 250	220 945	138 042	82 903	152 664	68 281	199 831	110 430	437 651
중랑구	354 765	224 687	141 018	83 669	158 243	66 444	49 549	127 847	276 467
성북구	410 887	257 327	163 063	94 264	178 088	79 239	123 271	140 668	393 490
강북구	324 293	208 003	129 089	78 914	147 774	60 229	29 739	131 526	222 506
도봉구	283 144	180 549	116 215	64 334	126 215	54 334	62 802	112 201	233 745
노원구	452 849	290 788	182 302	108 486	199 340	91 448	80 026	169 153	363 722
은평구	398 086	247 998	157 597	90 401	172 150	75 848	52 373	137 932	312 527
서대문구	299 059	189 917	118 139	71 778	132 888	57 029	140 761	105 630	334 190
마포구	323 876	208 934	128 961	79 973	147 860	61 074	118 815	111 325	331 366
양천구	373 959	244 887	158 819	86 068	160 501	84 386	53 134	141 693	285 400
강서구	402 604	257 590	163 372	94 218	175 732	81 858	94 811	135 346	362 069
구로구	297 368	195 783	125 874	69 909	138 723	57 060	139 667	107 052	329 983
금천구	230 985	151 427	96 240	55 187	110 687	40 740	39 449	85 243	185 191
영등포구	341 785	225 510	142 196	83 314	162 990	62 520	284 683	112 136	514 332
동작구	350 555	230 629	144 722	85 907	160 438	70 191	80 916	147 551	283 920
관악구	456 791	294 771	187 331	107 440	198 990	95 781	82 976	169 025	370 742
서초구	327 197	217 669	137 411	80 258	133 404	84 265	202 106	119 666	409 637
강남구	453 480	305 003	192 110	112 893	183 345	121 658	415 502	142 876	726 106
송파구	518 816	345 883	218 839	127 044	229 236	116 647	125 635	177 591	466 860
강동구	394 524	258 791	166 004	92 787	172 139	86 652	65 741	128 072	332 193

< 부산광역시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3 130 200	1 926 141	1 200 092	726 049	1 278 488	647 653	53 369	106 307	3 077 262
중구	54 630	32 610	19 467	13 143	22 091	10 519	96 892	15 513	136 009
서구	148 488	88 450	53 094	35 356	59 083	29 367	46 522	48 368	146 642
동구	129 041	77 167	47 082	30 085	52 509	24 658	56 822	40 687	145 176
영도구	172 125	102 209	64 052	38 157	67 874	34 335	24 106	50 180	146 051
부산진구	376 257	234 031	143 790	90 241	156 730	77 301	122 416	101 751	396 922
동래구	259 400	160 165	100 074	60 091	99 797	60 368	88 528	89 488	258 440
남구	259 512	161 006	100 901	60 105	104 099	56 907	86 282	69 600	276 194
북구	215 649	133 577	86 222	47 355	91 650	41 927	61 505	65 526	211 628
해운대구	243 408	147 393	92 445	54 948	99 901	47 492	43 298	75 625	211 081
사하구	306 078	191 697	120 622	71 075	128 538	63 159	67 030	76 275	296 833
금정구	252 876	152 779	95 688	57 091	97 188	55 591	59 995	74 443	238 428
강서구	54 775	36 667	21 547	15 120	26 484	10 183	15 437	10 844	59 368
연제구	203 426	123 489	77 394	46 095	79 776	43 713	38 521	77 439	164 508
수영구	163 670	98 908	61 766	37 142	61 120	37 788	17 878	63 108	118 440
사상구	235 353	152 148	95 041	57 107	106 634	45 514	46 875	64 149	218 079
기장군	55 512	33 845	20 907	12 938	25 014	8 831	7 967	10 016	53 463

< 대구광역시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983 924	1 208 889	762 518	446 371	789 220	419 669	36 894	113 741	1 907 077
중구	96 667	57 681	34 449	23 232	37 657	20 024	93 396	28 152	161 911
동구	287 904	174 841	110 459	64 382	117 990	56 851	46 170	87 486	246 588
서구	280 336	174 484	110 165	64 319	116 969	57 515	48 734	91 614	237 456
남구	193 465	114 731	70 440	44 291	71 584	43 147	54 915	66 361	182 019
북구	295 209	177 842	112 877	64 965	119 633	58 209	97 745	66 103	326 851
수성구	361 839	222 456	142 978	79 478	133 864	88 592	46 057	112 584	295 312
달서구	376 822	231 819	146 668	85 151	149 052	82 767	72 872	89 205	360 489
달성군	91 682	55 035	34 482	20 553	42 471	12 564	17 020	12 251	96 451

< 인천광역시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805 379	1 138 707	748 444	390 263	835 284	303 423	115 828	200 350	1 720 857
중구	56 505	34 254	21 487	12 767	25 318	8 936	65 634	14 240	107 899
동구	84 482	52 896	32 903	19 993	38 012	14 884	36 385	36 731	84 136
남구	347 384	215 532	141 197	74 335	149 591	65 941	105 432	106 006	346 810
연수구	157 524	97 628	66 609	31 019	71 858	25 770	17 687	73 773	101 438
남동구	298 361	188 854	123 550	65 304	137 364	51 490	79 216	85 596	291 981
부평구	382 929	244 041	159 768	84 273	180 368	63 673	88 816	103 795	367 950
계양구	189 637	121 298	82 620	38 678	92 369	28 929	20 351	69 742	140 246
서구	222 819	140 127	94 810	45 317	104 693	35 434	50 425	59 911	213 333
강화군	54 980	37 847	21 353	16 494	30 286	7 561	2 926	2 362	55 544
옹진군	10 758	6 230	4 147	2 083	5 425	805	772	10	11 520

< 광주광역시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000 729	629 754	391 368	238 386	385 905	243 849	29 938	49 324	981 343
동구	124 085	73 717	44 729	28 988	41 659	32 058	80 738	30 598	174 225
서구	179 584	112 762	70 675	42 087	68 254	44 508	51 801	57 743	173 642
남구	207 042	130 661	79 920	50 741	77 185	53 476	22 475	73 719	155 798
북구	362 727	231 576	144 284	87 292	139 888	91 688	66 863	87 482	342 108
광산구	127 291	81 038	51 760	29 278	58 919	22 119	34 986	26 707	135 570

< 대전광역시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013 966	628 438	400 990	227 448	403 343	225 095	29 171	47 382	995 755
동구	224 325	137 535	86 035	51 500	86 215	51 320	55 372	59 437	220 260
중구	219 869	134 398	83 609	50 789	83 336	51 062	74 760	55 331	239 298
서구	315 498	202 196	129 765	72 431	129 425	72 771	32 597	103 475	244 620
유성구	96 823	54 528	36 891	17 637	36 323	18 205	46 743	13 455	130 111
대덕구	157 451	99 781	64 690	35 091	68 044	31 737	41 476	37 461	161 466

< 경기도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5 958 707	3 742 739	2 441 283	1 301 456	2 799 924	942 815	498 098	933 943	5 522 862
수원시	591 263	379 347	247 071	132 276	275 395	103 952	115 952	102 134	605 081
성남시	684 063	437 124	284 823	152 301	312 108	125 016	70 905	194 231	560 737
의정부시	214 624	133 110	86 924	46 186	100 305	32 805	44 290	59 984	198 930
안양시	462 304	298 667	193 907	104 760	216 859	81 808	94 385	146 220	410 469
부천시	598 104	388 950	252 852	136 098	290 923	98 027	82 585	168 016	512 673
광명시	271 490	173 817	112 054	61 763	131 646	42 171	30 246	110 323	191 413
평택시	247 165	158 186	101 578	56 608	120 876	37 310	22 783	25 538	244 410
동두천시	57 659	33 515	21 509	12 006	25 547	7 968	8 935	9 640	56 954
안산시	377 220	244 658	168 751	75 907	197 995	46 663	74 166	55 841	395 545
고양시	394 364	237 765	162 377	75 388	179 411	58 354	42 981	138 237	299 108
과천시	52 792	33 060	21 707	11 353	24 387	8 673	25 371	24 064	54 099
구리시	110 629	68 673	45 298	23 375	50 432	18 241	20 445	37 172	93 902
남양주시	178 170	105 597	69 657	35 940	79 140	26 457	21 463	44 843	154 790
오산시	55 222	35 973	23 119	12 854	27 284	8 689	20 345	13 681	61 886
시흥시	98 813	60 352	41 004	19 348	47 564	12 788	27 685	31 521	94 977
군포시	178 839	112 393	74 233	38 160	83 221	29 172	30 106	72 321	136 624
의왕시	82 405	51 955	34 932	17 023	39 271	12 684	13 977	34 786	61 596
하남시	90 729	57 468	36 952	20 516	42 383	15 085	9 623	31 537	68 815
양주군	74 196	43 627	28 331	15 296	33 437	10 190	13 869	14 001	74 064
여주군	74 727	45 812	27 403	18 409	34 242	11 570	5 874	4 371	76 230
화성군	130 295	89 943	55 208	34 735	72 350	17 593	31 848	17 070	145 073
파주군	132 139	78 656	50 094	28 562	59 663	18 993	13 165	16 136	129 168
광주군	67 692	36 125	23 496	12 629	26 726	9 399	22 503	8 176	82 019
연천군	42 291	22 340	13 778	8 562	16 067	6 273	2 545	4 028	40 808
포천군	94 026	57 732	36 614	21 118	43 860	13 872	19 296	4 435	108 887
가평군	40 343	19 419	12 687	6 732	13 827	5 592	3 075	2 297	41 121
양평군	58 161	35 958	21 974	13 984	27 591	8 367	3 950	2 637	59 474
이천군	123 688	72 182	44 956	27 226	55 410	16 772	14 732	5 606	132 814
용인군	190 214	112 677	74 118	38 559	85 183	27 494	57 128	28 574	218 768
안성군	99 247	64 902	39 439	25 463	46 743	18 159	12 507	6 279	105 475
김포군	85 833	52 756	34 437	18 319	40 078	12 678	32 601	11 482	106 952

< 강원도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199 859	738 923	455 367	283 556	510 673	228 250	20 199	6 481	1 213 577
춘천시	194 147	115 454	72 111	43 343	73 050	42 404	6 248	5 421	194 974
원주시	191 738	123 267	77 023	46 244	84 783	38 484	8 885	5 865	194 758
강릉시	182 418	117 365	71 294	46 071	77 091	40 274	4 891	5 886	181 423
동해시	77 595	44 805	28 825	15 980	30 024	14 781	3 042	4 644	75 993
태백시	48 851	26 330	16 847	9 483	16 375	9 955	1 069	1 386	48 534
속초시	66 711	39 537	24 520	15 017	27 673	11 864	5 244	4 052	67 903
삼척시	69 692	42 852	26 487	16 365	28 421	14 431	5 308	1 864	73 136
홍천군	55 265	34 916	20 227	14 689	26 704	8 212	2 528	1 154	56 639
횡성군	35 620	25 191	14 311	10 880	20 293	4 898	3 022	1 254	37 388
영월군	39 565	24 601	14 623	9 978	18 112	6 489	2 013	855	40 723
평창군	37 625	23 775	14 257	9 518	18 350	5 425	1 845	312	39 158
정선군	43 989	26 250	15 793	10 457	18 558	7 692	812	307	44 494
철원군	39 837	25 691	16 235	9 456	19 380	6 311	1 319	807	40 349
화천군	19 501	9 894	6 526	3 368	7 502	2 392	1 249	261	20 489
양구군	17 809	10 917	7 240	3 677	8 745	2 172	313	44	18 078
인제군	25 444	14 012	8 987	5 025	10 724	3 288	525	186	25 783
고성군	30 434	19 046	11 213	7 833	14 164	4 882	2 636	2 852	30 218
양양군	23 618	15 020	8 848	6 172	10 724	4 296	1 857	1 938	23 537

< 충청북도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133 287	732 511	442 415	290 096	519 241	213 270	33 026	21 969	1 144 344
청주시	422 078	266 186	166 811	99 375	172 524	93 662	32 915	27 974	427 019
충주시	166 172	105 792	65 211	40 581	73 260	32 532	5 705	4 028	167 849
제천시	111 196	68 475	42 898	25 577	48 195	20 280	3 445	5 660	108 981
청원군	93 717	62 603	36 460	26 143	45 939	16 664	12 673	18 034	88 356
보은군	35 771	25 444	13 806	11 638	20 336	5 108	1 930	710	36 991
옥천군	52 043	36 808	20 451	16 357	27 731	9 077	5 248	3 143	54 148
영동군	52 725	37 987	21 314	16 673	29 087	8 900	1 814	2 529	52 010
진천군	42 440	27 470	16 076	11 394	21 721	5 749	5 043	2 763	44 720
피산군	36 058	26 019	14 041	11 978	21 621	4 398	5 024	910	40 172
음성군	63 378	39 415	23 440	15 975	31 667	7 748	7 148	2 850	67 676
단양군	33 128	21 294	12 422	8 872	16 474	4 820	3 296	1 056	35 368
증평출장소	24 581	15 018	9 485	5 533	10 686	4 332	586	4 113	21 054

< 충청남도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453 230	963 732	563 948	399 784	710 382	253 350	74 043	27 499	1 499 774
천안시	261 210	166 567	105 390	61 177	120 402	46 165	35 381	18 121	278 470
공주시	109 094	72 158	39 834	32 324	49 385	22 773	8 272	4 088	113 278
보령시	101 781	63 457	38 139	25 318	45 351	18 106	1 879	3 566	100 094
아산시	128 488	79 448	48 055	31 393	58 525	20 923	15 949	8 914	135 523
서산시	108 283	80 487	47 315	33 172	63 588	16 899	3 983	3 014	109 252
금산군	53 757	38 129	20 681	17 448	29 382	8 747	5 333	3 046	56 044
연기군	67 489	42 296	25 641	16 655	30 069	12 227	8 415	5 877	70 027
논산군	121 701	77 418	45 073	32 345	54 866	22 552	12 826	4 792	129 735
부여군	78 371	50 403	27 421	22 982	37 278	13 125	2 667	2 997	78 041
서천군	67 394	44 999	25 543	19 456	33 251	11 748	2 777	2 067	68 104
청양군	33 979	24 872	13 499	11 373	20 140	4 732	1 540	823	34 696
홍성군	81 687	53 605	30 353	23 252	38 624	14 981	4 887	1 795	84 779
예산군	83 690	58 585	32 754	25 831	44 215	14 370	3 132	2 791	84 031
태안군	52 136	40 647	22 289	18 358	31 800	8 847	1 940	1 218	52 858
당진군	92 382	63 652	36 944	26 708	49 368	14 284	3 270	1 582	94 070
계룡출장소	11 788	7 009	5 017	1 992	4 138	2 871	397	1 413	10 772

< 전라북도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553 294	1 021 850	597 649	424 201	696 385	325 465	12 059	7 520	1 557 833
전주시	451 790	288 170	178 001	110 169	172 851	115 319	31 790	31 503	452 077
군산시	216 852	132 771	84 081	48 690	86 742	46 029	11 918	8 493	220 277
익산시	258 380	161 861	98 934	62 927	103 911	57 950	18 644	15 526	261 498
정읍시	115 146	77 029	42 407	34 622	55 665	21 364	4 876	4 717	115 305
남원시	85 500	59 386	33 038	26 348	43 523	15 863	3 042	1 662	86 880
김제시	96 877	64 977	35 308	29 669	48 230	16 747	6 585	10 706	92 756
완주군	68 900	48 558	27 414	21 144	35 870	12 688	8 757	13 240	64 417
진안군	27 084	20 519	10 396	10 123	17 037	3 482	1 955	388	28 651
무주군	24 725	18 009	9 675	8 334	14 807	3 202	1 062	274	25 513
장수군	22 447	15 772	8 211	7 561	12 393	3 379	926	295	23 078
임실군	31 058	23 540	11 985	11 555	19 401	4 139	2 266	1 463	31 861
순창군	29 806	22 283	11 031	11 252	18 092	4 191	910	800	29 916
고창군	64 182	46 418	24 260	22 158	35 349	11 069	1 630	898	64 914
부안군	60 547	42 557	22 908	19 649	32 514	10 043	2 089	1 946	60 690

< 전라남도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1 691 392	1 157 348	654 128	503 220	854 670	302 678	50 446	29 136	1 712 702
목포시	198 403	113 331	71 770	41 561	66 081	47 250	9 461	12 735	195 129
여수시	145 992	89 615	57 279	32 336	58 264	31 351	9 118	17 520	137 590
순천시	198 004	132 226	79 809	52 417	90 297	41 929	10 855	16 793	192 066
나주시	90 252	61 736	33 170	28 566	47 234	14 502	13 198	6 224	97 226
여천시	55 959	34 515	23 458	11 057	25 155	9 360	16 510	6 030	66 439
광양시	92 335	60 654	40 152	20 502	45 729	14 925	11 290	4 071	99 554
담양군	52 476	38 969	20 864	18 105	29 506	9 463	6 186	7 697	50 965
곡성군	35 463	24 971	12 845	12 126	19 466	5 505	3 956	1 119	38 300
구례군	29 132	20 930	11 062	9 868	16 131	4 799	1 358	1 030	29 460
여천군	46 792	35 300	18 704	16 596	27 988	7 312	3 626	5 393	45 025
고흥군	85 741	67 144	34 228	32 916	54 550	12 594	1 196	1 204	85 733
보성군	55 786	37 951	19 956	17 995	28 865	9 086	3 337	1 677	57 446
화순군	53 130	35 579	19 884	15 695	27 342	8 237	5 466	6 650	51 946
장흥군	43 468	34 429	17 095	17 334	27 378	7 051	1 024	473	44 019
강진군	40 752	27 122	14 152	12 970	21 133	5 989	1 462	760	41 454
해남군	80 008	59 558	31 015	28 543	47 639	11 919	1 470	654	80 824
영암군	46 184	30 734	16 167	14 567	23 588	7 146	5 701	1 809	50 076
무안군	56 781	43 498	22 275	21 223	33 204	10 294	8 227	4 417	60 591
함평군	41 528	28 965	14 700	14 265	22 174	6 791	1 945	1 690	41 783
영광군	56 173	38 193	21 196	16 997	29 176	9 017	2 806	689	58 290
장성군	43 725	29 674	16 160	13 514	22 965	6 709	4 164	3 538	44 351
완도군	54 076	38 686	20 527	18 159	30 658	8 028	653	182	54 547
진도군	35 653	28 185	13 972	14 213	22 447	5 738	332	50	35 935
신안군	53 579	45 383	23 688	21 695	37 700	7 683	882	508	53 953

< 경상북도 >

행정구역	인 구	통 근 통 학 인 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2 192 978	1 426 138	843 810	582 328	1 058 812	367 326	125 560	37 685	2 280 853
포항시	405 454	252 251	165 537	86 714	177 510	74 741	8 013	6 860	406 607
경주시	225 313	144 149	87 541	56 608	104 310	39 839	15 613	10 172	230 754
김천시	122 207	82 958	46 400	36 558	60 291	22 667	4 429	6 578	120 058
안동시	157 971	104 084	60 017	44 067	70 040	34 044	4 398	3 223	159 146
구미시	239 218	149 427	95 829	53 598	116 996	32 431	26 016	6 045	259 189
영주시	109 065	65 720	39 196	26 524	43 858	21 862	2 751	3 126	108 690
영천시	94 794	62 719	34 415	28 304	47 907	14 812	7 268	6 015	96 047
상주시	104 865	74 719	39 897	34 822	57 694	17 025	3 936	1 589	107 212
문경시	77 597	48 200	27 754	20 446	34 759	13 441	1 507	2 777	76 327
경산시	141 468	90 622	55 246	35 376	61 228	29 394	69 200	18 500	192 168
군위군	25 367	19 472	10 053	9 419	16 992	2 480	1 582	641	26 308
의성군	66 226	49 667	25 358	24 309	41 825	7 842	2 165	1 294	67 097
청송군	29 206	19 932	10 935	8 997	16 566	3 366	1 273	652	29 827
영양군	20 234	14 639	7 710	6 929	11 802	2 837	669	353	20 550
영덕군	44 226	28 274	15 318	12 956	22 170	6 104	921	649	44 498
청도군	43 387	30 780	15 596	15 184	24 837	5 943	2 329	1 847	43 869
고령군	26 802	17 802	9 709	8 093	14 438	3 364	4 305	1 583	29 524
성주군	40 250	30 218	15 607	14 611	25 628	4 590	3 993	1 414	42 829
칠곡군	66 700	40 541	24 868	15 673	31 565	8 976	11 950	11 738	66 912
예천군	53 355	37 992	20 286	17 706	29 984	8 008	1 534	1 644	53 245
봉화군	36 279	23 424	12 415	11 009	18 371	5 053	1 395	1 293	36 381
울진군	53 661	34 469	21 167	13 302	27 060	7 409	825	235	54 251
울릉군	9 333	4 079	2 956	1 123	2 981	1 098	31	0	9 364

< 경상남도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3 052 451	2 002 856	1 245 070	757 786	1 463 505	539 351	112 339	62 026	3 102 764
창원시	357 862	235 096	160 844	74 252	175 281	59 815	63 333	47 063	374 132
울산시	743 784	473 426	325 218	148 208	341 081	132 345	26 847	14 536	756 095
마산시	363 388	233 470	141 932	91 538	157 892	75 578	53 720	56 967	360 141
진주시	268 974	178 765	104 792	73 973	114 260	64 505	15 474	11 267	273 181
진해시	99 966	59 232	37 895	21 337	41 448	17 784	7 585	15 598	91 953
통영시	106 883	68 265	41 202	27 063	49 329	18 936	2 396	4 040	105 239
사천시	93 131	59 459	34 222	25 237	43 062	16 397	5 648	8 863	89 916
김해시	197 037	124 657	78 630	46 027	93 214	31 443	34 432	27 665	203 804
밀양시	101 394	67 845	37 723	30 122	49 975	17 870	3 838	4 069	101 163
거제시	114 538	75 128	49 218	25 910	58 283	16 845	3 210	1 058	116 690
의령군	33 008	25 552	13 026	12 526	21 201	4 351	1 833	3 741	31 100
함안군	50 194	35 905	19 702	16 203	28 610	7 295	8 898	3 966	55 126
창녕군	60 655	42 215	22 743	19 472	33 591	8 624	2 957	2 319	61 293
양산군	124 254	76 249	49 606	26 643	58 666	17 583	39 287	21 182	142 359
고성군	51 439	37 056	19 613	17 443	28 869	8 187	4 225	2 880	52 784
남해군	51 395	39 514	19 587	19 927	32 179	7 335	886	258	52 023
하동군	46 382	32 613	17 292	15 321	26 237	6 376	2 242	1 398	47 226
산청군	37 940	27 571	14 290	13 281	21 460	6 111	2 036	2 810	37 166
함양군	38 072	28 752	14 489	14 263	23 173	5 579	691	813	37 950
거창군	59 081	43 268	23 370	19 898	33 291	9 977	879	589	59 371
합천군	53 074	38 818	19 676	19 142	32 403	6 415	1 554	576	54 052

< 제주도 >

행정구역	인 구	통근통학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계	남	여	통근	통학			
계	404 634	285 470	158 458	127 012	205 076	80 394	195	90	404 739
제주시	203 268	132 881	78 151	54 730	89 247	43 634	19 683	9 252	213 699
서귀포시	65 955	49 151	26 488	22 663	36 489	12 662	6 053	5 285	66 723
북제주군	73 145	53 702	28 023	25 679	41 147	12 555	6 619	12 521	67 243
남제주군	62 266	49 736	25 796	23 940	38 193	11 543	3 437	8 629	57 074